

코스피(10일)	코스닥
▲ 1962.93 (+8.16P)	▲ 619.97 (+5.37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 1193.20 (-11.00원)	▲ 1.082% (+0.044%P)

공매도 과열종목 늘리고 금지기간도 연장

금융위, 오늘부터 지정요건 완화
3개월간 과열종목 지정 대상 확대
거래금지기간 1일→10일 연장
“필요시 비상계획 따라 조치”

앞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공매도 금지 기간도 하루에서 10거래일(2주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횡행함에 따라 하락장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강화안에 따르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직전 40거래일간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도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된다. 기존 6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된 조치다. 코스닥은 이 기준이 기존 5배에서 2배로 낮아진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은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

된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진 가운데, 이달 들어 급증한 공매도를 대책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실제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이달 들어 6428억1000만 원을 기록했다. 전달(5091억1000만 원)보다 26.3% 증가한 수치다. 코스닥은 이달 1628억5000만 원으로 전달보다 4.6%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증가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개별 종목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과감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강화안에 따라 기존보다 지정 건수가 2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공매도 과열종목 수는 유가증권시장이 96건, 코스닥은 594건이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공매도 대응책이 핀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면에 계속 이신철 기자 camus16@



수도권도 집단 감염 1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 관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64명 발생했다. 수도권 최대 규모 집단 감염이다. 이날 코리아빌딩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WHO ‘팬데믹 선언’만 남았다 세계 확진 11만명 넘어…구로 콜센터 64명 감염 ‘초비상’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대표 뉴스채널 CNN은 이미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팬데믹’으로 부르는 등 이제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선언만 남았다.

9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연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시아와 유럽, 중동과 미국 일부 등 전 세계로 퍼지면서 팬데믹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바이러스는 많은 국가에서 거점을 마련했다. 팬데믹 위협이 현실화했다”며 “주말 동안 100개 국가에서 코로나19 사례가 10만 건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는 발원지인 중국에서 최근 뚜렷하게 확진자 수가 둔화하고 있지만, 반대로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기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1만3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4000명에 달했다. 초기 중국 이외의 감염률은 1% 정도였지만, 현재 약 30%까지 상승했다. 특히 이탈리아, 한국, 이란 3개국에서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0일 오후 2시 기준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11층 보험회사 콜센터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64명 나와 수도권에 초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너무 많은 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다. 시간 문제일지도 모른다”며 팬데믹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CNBC는 그러나 WHO 내부에서는 아직 팬데믹으로 부르기에 이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WHO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이외에 팬데믹을 선언하는 공식 규정은 없다. 만일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더라도 각국이 뭔가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팬데믹이 선언되면 지금까지의 봉쇄 단계에서 더 나아가 완화나 증상치료가 중요하다고 알려졌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규정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며 “다만 통상적으로 팬데믹은 국가 간 전염이 일어나고 통제가 제대로 안 이뤄질 때를 일컫는다. 중국과 싱가포르 등 통제에 성공한 국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환자가 100개국에서 10만 명에 달할 경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불과 2주 전에는 30개국이었다”고 지적해 조만간 팬데믹 선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코로나19’ 기사 3·4·6·8·9·16·19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0만원 첫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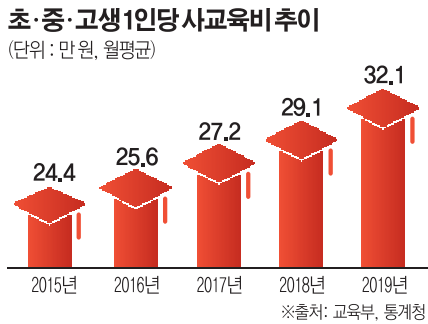
초등 29만원…고교 36만5000원
자사고·특목고 희망자 지출 ‘쑥’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30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10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 원으로 전년(19조5000억 원)보다 7.8%(1조5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전년의 29만1000원보다 10.4%(3만 원) 늘었다. 7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만 놓고 보면 2019년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9000원으로 전년(39만9000원)보다 7.5%(3만 원) 증가했다.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생이 29만 원, 중학생 33만8000원,



고등학생은 36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3%, 8.4%, 13.6% 증가했다.

일반고보다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는 각각 25만6000원, 32만4000원이었으나 자사고 진학 희망자의 경우 각각 44만8000원, 55만4000원이었다. 이어 과학고와 영재고를 희망하는 초·중·고 학생은 각각 41만8000원, 52만7000원, 외국고·국제고 희망자는 42만4000원, 53만2000원을 각각 사교육비로 썼다.

이번 조사는 전국 3002개교 학부모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6월과 9~10월에 진행됐다.

손현경 기자 son89@

코로나19 극복! 함께해요



이투데이 · 서울시 · 대한상의

· 사회적 거리두기 · 함께 나누기

· 서로 배려하기 · 바이러스 바로 알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영업이 무너지고 기업은 비상경영을 선언하는 등 위기를 넘기 위해 인간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투데이는 IMF 시절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국민운동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거·나·배·바(사회적 거리두기, 함께 나누기, 서로 배려하기, 바이러스 바로 알기)' 운동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전 국민 안전행동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관련기사 2면

수도권 3억 집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국토부, 13일부터 시행

13일부터 경기 수원·의왕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항목별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3억 원 이상)로 한정했던 것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간간해졌다. 기존엔 증여·상속으로 얼마를 충당했는지만 기재하면 됐다. 하지만 13일부터는 직계존비속, 부부, 그 밖의 관계 등으로 나눠 누구에게 받았는지까지 적어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액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항목을 세분화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주택 매입 자금이 금융기관 예금이면 잔고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주식·채권 매각 대금일 경우 주식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증여·상속이라면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을 차분해 만든 자금이라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13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된다.

문선영 기자 moon@



에이스침대 “대리점에 임대료·인건비 지원”

안성호<사진> 에이스침대 대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대리점 지원에 나섰다. 대리점 임대료는 물론이고 점주가 지급해야 할 매장 직원 월급도 지원한다.

10일 침대 브랜드 에이스침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주를 위한 상생 방안을 내놔다.

먼저 에이스침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대리점을 포함해 전국 대리점 경영주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 및 인건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영업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대리점 34개점 포함, 전국 240개 매장에 임대료는 물론 각 대리점 점주가 지급해야 할 매장 직원 월급의 일부를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대리점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3월에 1차 지원할 비용은 11억 원에 달한다. 대구·경북지역 대리점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와 매장운영 형태에 따라 임대료는 최소 3분의 2를 지원하고, 경영주를 포함한 직원 1인당 인건비를 최소 150만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에이스침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부터 각 지역별 대리점들의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피해 규모와 지원 형태를 고민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리점주들은 판매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지출하는 인건비 규모도 줄어 매장 운영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대리점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안성호 대표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대리점 경영주분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특별 지원을 마련했고, 이번 지원으로 매장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리점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에이스침

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리점과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왔다.

안 대표는 자사 대리점주들이 시세 상승으로 인해 주요 상권에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본사가 부지를 매입·건축 후 대리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권개발로 갈수록 높아지는 임대료 부담을 대리점주가 혼자 부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에이스침대는 전국 거점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신축해 대형 매장을 만들거나 기존에 노후한 에이스 매장을 리뉴얼 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에이스침대는 △대리점 보증금 무이자 지원 프로그램 △대리점 2세 경영주 양성 교육 △제품 직배송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리점과의 상생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최영희 기자 che@

공연·예술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극장 입장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온라인 생중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은 3월 자체 기획한 공연을 모두 취소했다. 예술의전당도 사정은 비슷하다. 중소형 극장은 대관료 환급 문제와 배우 출연료, 무대 설치비 등 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공연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성상 관객 동원이 필수인 문화계는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을까.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안내 멘트 울려 퍼지는 극장 = 현재 작품을 올리는 대다수의 극장은 공연이 시작하기 전 “공연 관람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라는 안내 멘트를 한다.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 외쳐, 조선!’을 공연 중인 대학로 흥익대 아트센터 대극장은 예매 사이트 등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관객 입장 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연극 ‘지구를 지켜라’를 공연 중인 대학로 아트원 씨어터도 마스크 미착용 관객과 체온 37.5도 이상 관객은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마리 퀴리’는 모든 관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관객들은 극장의 안내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쓴 채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레베카’에 출연 중인 배우 옥주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대에서 보면 마스크로 대동단결한 관객석 모습이 장관”이라며 감사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관객 없어도... 안방 1열에서 응원할 게요 = 무(無) 관객 온라인 생중계도 등장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레퍼토리 시즌제를 도입하면서 준비한 연극 ‘브라보 업 사장’을 12일 오후 4시 공식 유튜브 채널 ‘깍티비’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우중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은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던 경기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관중 생중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어지는 나머지 공연들도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공연 지원 사업인 ‘공연예술 창작산실’은 무용 ‘히트 앤 런’을 6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했고, 12일 오후 8시 연극 ‘의자 고치는 여인’ 실황을 내보낼 예정이다. 앞서 2일 네이버TV와 V앱을 통해 녹화중계된 ‘마리



네이버TV로 녹화중계된 공연 실황이 21만 뷰에 달한 뮤지컬 ‘마리 퀴리’ 속 한 장면. 사진제공 라이브

퀴리’ 공연 실황은 21만 뷰를 기록했다.

◇안방에서 직접 설명듣는 미술 = 코로나19 사태로 휴관에 들어간 국립중앙박물관이 특별전 ‘핀란드 디자인 1000년’ 전시를 13일 오후 7시 네이버 TV로 중계한다. 이번 전시를 담당한 백승미 학예연구사가 직접 출연해 전시에 대한 질문도 즉석으로 받을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도 온라인 전시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시를 기획한 학예

사가 직접 전시장을 둘러보며 작품을 실감나게 설명하는 30분~1시간가량의 전시 투어 영상을 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코로나19로 미술관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국내 및 해외 관람객들이 집에서 실시간으로 전시를 감상하고, 미술로 감동과 위로를 드리도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

aT가 함께 합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농식품 수급안정

식품산업육성

농수산물 수출진흥

농식품 유통개선

POS-mall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혁신

보다 나은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코로나 폭풍’ 막아야 재선 가도 뚫린다 ‘경기부양’ 카드 꺼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텔·항공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의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된다.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해 금융시장의 동요가 계속되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레아 재선 가도에 청

‘코로나 직격탄’ 호텔·항공업 등 세금 감면 추진… 급여세 인하도
다우지수 선물 한때 300P 이상 급등, S&P500 선물은 30P 상승
연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대응 전망

신호가 켜질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의 증시 호황을 자신의 주요 경제적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워온 만큼 증시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공화당 하원의원, 미치 매킨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과 만나 (타격 업종에 대한) 감세 방안이나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시급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며, 그들이 급여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NBC는 세금 감면 규모가 지난주 트럼

프 대통령이 서명한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 내에서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의회가 승인한 83억 달러(약 9조9400억 원)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또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유급 병가, 중소기업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장을 연출한 주식시장이

반등세를 보였다. 장 마감 후 다우지수 선물은 한때 300포인트 이상 뛰었고, S&P 500 선물도 30포인트가량 상승했다. 9일 미국 증시는 코로나19와 국제유가 급락 충격으로 폭락 마감했다. S&P 500지수는 개장 직후 낙폭이 7%에 달하면서 15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1997년 10월 ‘피의 월요일’ 이후 처음이었다.

한편 연준도 9일 금융기관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고객 기업에 대한 원활한 대출을 촉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용 경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적절한 지원을 해 나간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연준의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담당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오버나이트(익일물) 환매조건부 채권(REPO·레포) 운영 규모를 기존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약 180조 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장에서는 연준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사용했던 비상 수단을 도입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추가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시장은 연준이 위기 때마다 써왔던 조치들에 주목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나왔던 외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제도를 활용한 달러 자금 공급 확대다. 이를 도입하면 연준은 중앙은행의 할인 창구를 통해 시중은행들이 대출받는 것을 장려할 수 있다.

변호선 기자 hsyun@



텅 빈 베네치아 광장

이탈리아 대표 관광지 베네치아의 성 마르코 광장이 9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인해 텅 비어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이동금지 조치를 내렸다. 베네치아/AP뉴스

“거래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1면서 계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금융위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완화제도 확대를 반대하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완화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 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이므로 시장 전체 리스크보다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 좋다”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전망 불확실성 등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공매도 지정종목제도 완화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금융위는 “부분적 금지안과 함께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포함해 검토했다”며 “10일 아시아 시장

과 뉴욕선물시장도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부분금지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개별 주식의 적정 가격 발견 등 순기능이 있어 시장 전반적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가 금지되더라도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예외로 허용되므로 여전히 외국인이 이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시장조성(market making)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통상 공매도 투자와 다르게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 제시를 통해 시장 급락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매도 금지 조치 시 예외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이므로 외국인이 시장조성 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박이다. 특히 외국인의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공매도 호가는 거래소 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올림픽보다 큰 운동회

관객도 박수 소리도 작은 경기지만
어린 선수들의 각오는 올림픽만큼 큼니다

건강한 체력과 인성이 자라는
꿈나무 체육대회는 세상 가장 큰 운동회입니다

대한민국의 보험은
사람입니다



KYOBO 교보생명

교보생명엔 꿈나무체육대회는 체육꿈나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1985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유소년 전국 종합체육대회입니다

콜센터 업무 특성상 마스크 미착용 ‘감염 무방비’

서울 40명, 인천 13명, 경기 11명 거주... 수도권 초비상
신도림역 지하철 인구밀집도 높아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
충청권 106명으로 늘어... 대구·경북 확진자 감소세 뚜렷

대구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2주 만에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수도권엔 비상이 걸렸다. 하루 이용자만 40만 명에 달하는 신도림역 인근의 콜센터에서 60명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해서다. 수도권은 인구밀집도가 높아 대구처럼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10일(오후 2시 기준) 구로구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4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40명, 인천은 13명, 경기는 11명이다. 확진자의 대다수는 콜센터 직원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이날 정오까지 확인한 확진자는 50명(14명은 오후 서울시 발표에서 추가)이었는데, 이 중 46명이 콜센터 11층에서 근무하던 직원이고, 나머지 4명은 확진자의 가족이었다. 방대본은 해당 콜센터 직원 207명에 대해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발표를 포함해 0시 이후 파악된 확진자는 11일 0시 통계에 집계된다.

권준욱 방대본 부분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영업시설 및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일단 전면 폐쇄됐고, 전체 방역소독은 완료

됐다”며 “현재로서는 다른 층의 콜센터 직원과 직접적인 접촉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콜센터의 근무자 중 신천지 신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콜센터의 위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콜센터 근처의 신도림역은 국내에서 가장 혼잡한 지하철역 중 하나여서다. 직원들은 전화응대를 하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이 출퇴근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가 수도권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충청권에서도 천안 줌바댄스 강사 워크숍 관련 확진자가 증가세다. 0시까지 충남에서 99명, 세종에선 7명이 확인됐다. 세종에선 코로나19가 정부청사까지 번진 상황이다.

반면, 초기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대구·경북지역에선 신규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다. 대구에선 신규 확진자가 92명으로 지난달 25일 이후 14일 만에 100명을 밑돌았고, 경북은 10명에 그쳤다.

권 부분부장은 “집단감염과 관련해 해외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0일 주차장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가 붙여져 있다. 대통령기록관 내 전시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휴관에 일반 시민의 접촉 가능성이 낮다.

로부터 유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신천지 신도들을 다 관리했다 하더라도 이미 신천지 신도로부터 시작된 발생이 다른 지역사회에서 2·3차, 더 이상의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며 “또 잠복기 중에 국내로 들어온 코로나19 감염자로 인해 지역사회

에서 조용한 전파가 진행돼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본인의 몸 상태가 이상할 때 일자리에 나가지 않고 자택에서 머물다가 증상의 진행에 따라서 며칠을 버티보고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나 콜센터를 통해 안전한 의료기관 또는 검사가 가능한 곳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켜져야 할 수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文대통령 “입국제한국가와 ‘기업인 예외’ 협의” 지시

긴급 출장 기업인, 건강 상태 확인서 지참한 경우 허용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내에서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인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다른 나라들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출장 등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확진 환자수가 100명대로 줄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정체상태인 데 반해 이탈리아와 미국, 이란 등 해외에서는 오히려 환자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예외적 허용’을 타진해 볼 만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면서 국내와 해외 상황을 비교하며 “기대감”을 언급한 점에서도 이 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방역 역량에 대해 긍

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확진자가 그제 248명, 어제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섰다. 이런 점을 설명하면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에게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지난 주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직접 한국인 입국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와 청와대가 ‘기업인 입국’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배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미 이달 초부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 중 24~25개국에 대해 사업상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코로나19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 조치를 일부 제외하는 등 방안을 협

의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뒤 “국무총리도 여러 차례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외교부는 초기에 20여 개국을 상대로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일찍부터 기업 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달 초부터 터키, 중국, 베트남 등 기업 활동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건강 상태 확인서 등을 지참한 경우 예외 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극히 일부이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이 공개 지시를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예외적으로 우리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한 국가가 한두 곳 있다고 밝힌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예외를 인정받은 데가 있다”며 “아직은 한두 개 정도다. 시작이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코로나發 ‘위약금 면제’ 민원 폭주

상담 1만5000건...전년비 7.8배 ↑
“부과율 확인 후 취소·연기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행·예약 등 분야의 소비자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가 1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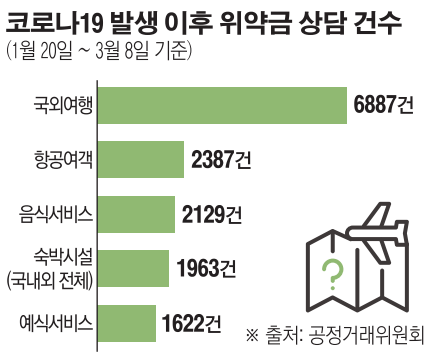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계약 취소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상담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해당 사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위약금 면제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들이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위약금 관련 조항을 꼼꼼히 살펴 취소 시점의 부과율을 확인하고 예약 취소 또는 연기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을 보면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20일~3월 8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1만498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919건)보다 7.8배 더 많았다.

업종별로 보면 국외 여행이 6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 여객(2387건),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129건), 국내외 숙박시설(1963건), 예식서비스(1622건)가 뒤를 이었다.

상담 내용별로는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많았다.

1월 20일~3월 8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접수건은 614건(상담건수 대비 4.1%)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국외여행(228건)에서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다. 총 614건 중 처리 완료된 건수는 231건이며 이 중 136



건(22.1%)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조정 등 합의가 이뤄졌고, 95건(15.5%)은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상 예약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예약취소나 일정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종의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이 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이 있지만 사업자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 우선 적용돼서다. 더욱이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취소 시점 및 부과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사업자와의 협의에 대비해 계약서를 보존하고 예약취소 시 취소 시점·취소 당사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사업자와 협의하되, 해결이 어렵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세종청사 5명 확진... 업무 차질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정부세종청사까지 확산하는 모습이 다. 청사 공무원 중에서만 5명의 확진환자가 나왔고, 일부 부처에선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선 이날까지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처별로는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대통령기록관(발생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나마 인혁처와 대통령기록관은 건물이

정부청사와 분리돼 있고, 보훈처는 확진자가 경북 영천으로 전근한 상태였지만, 복지부와 해수부는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청사를 출입했다.

특히 복지부에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설치돼 있으며, 해수부는 마스크 수급대책과 방역 관련 재정지원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인접하다. 코로나19가 정부청사 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일부 부서는 사무실 폐쇄 및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복지부 확진자의 접촉자와 같

은 국 직원들은 모두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고, 해수부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현 시점에선 음성으로 판정되더라도 잠복기(14일)를 고려하면 향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확진자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보훈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구내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타 부처 전파 우려도 있다.

정부세종청사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우선 확진자가 머물렀던 공간에 대해선 소독이 완료됐으며, 확진자의 접촉자들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업무를 처리 중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현역 물갈이” 외쳤지만… 실상은 ‘돌려막기·무더기 공천’

여야 공천 면면 살펴보니…

4·15 총선을 약 한 달여 앞두고 각 당의 ‘대표 주자’가 될 후보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정권 심판’ 또는 ‘야권 심판’을 이끌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여야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물갈이’에 주목하고 있지만, 슬그머니 ‘무더기 공천’이나 ‘돌려막기 공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까지 민주당에서 불출마하거나 컷오프(공천배제)된 현역 의원은 총 35명으로, 현역 교체율은 27.1%였다. 통합당(37%)보다 10%P(포인트) 낮은 수치다.

공천 심사 전후로 불출마 의사를 밝힌 22명을 제외하면, 공관위 심사로 본선 참가 자격을 떠나지 못한 의원은 13명(10.1%)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실질적인 현역 교체율은 10%인 것이다. 비교적 현역이 강세를 보인 셈으로, 그 가운데서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선전이 두드러진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수석급부터 행정

민주당, 청와대 출신 대거 공천

친문·86세대 정치인 살아남아

“현역 50% 교체” 공언 통합당

인물난에 지역구 바꿔서 공천

현역교체 與 27%, 통합당 37%

“실질적 현역 교체 없어” 반발

관급까지 다양하게 공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향실장(서울 구로을)과 고민정 전 대변인(서울 광진을)은 전략공천을 받았다.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 박수현 전 대변인(충남 공주·부여·청양), 진성준 전 정부기획비서관(서울 강서을) 등의 인사도 단수공천을 받아 경선 없이 곧장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됐다.

현역 의원 중에서도 홍영표(인천 부평을)·전해철(경기 안산 상록갑)·윤호중(경기 구리)·김태년(경기 성남 수정)의



원 등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인사들은 경쟁자 없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와 가까운 김정은(경남 김해을) 의원은 지난달 28일 컷오프됐다가 8일 경선 대상자로 선정되며 부활의 기회를 얻었다. 2018년 말 ‘공항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김 의원은 민주당 전략선거구 중 유일한 현역 생존자다. 홍익표(중·성동갑) 의원은 최근 ‘대구 봉쇄’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공천을 확정했다.

송영길(인천 계양을)·이인영(서울 구로갑)·우상호(서울 서대문갑) 의원 등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정치인들도 대부분 살아남았다. 이들은 지난해

말 86세대 대표주자로 꼽히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한 것을 계기로 ‘용퇴론’ 압박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스템 공천 심사와 공정한 경선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의 20% 정도가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친문 핵심 현역과 86그룹을 막판에 몰아 슬그머니 무더기 공천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당도 일찌감치 ‘현역 50% 교체’를 최소 목표로 대규모 물갈이를 공언했지만, 교체율이 아직 50%에 못 미치고 있다. 더구나 현재까지 통합당의 공천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구를 바꿔 공천을 받거나 경선 후보에 올라 있는 현역 의원은 10

명에 달한다.

인물난 속에 인지도 있는 현역 의원들을 험지나 전략 지역으로 보내 1석이라도 더 얻겠다는 통합당의 현실적인 계산이나, 지역과 무관한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이다.

4선의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김부겸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에 공천됐다. 4선 정우택 의원도 충북 청주상당을 떠나 충북 청주흥덕에서 도종환 민주당 의원과 대결하게 됐다.

김재원(경북상주·의성·군위·청송) 의원은 연고가 없는 서울 중랑을에서 경선을 펼치며,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한 이해훈 의원은 서울 동대문을에 나가게 됐다. 이에 대한 공천 반발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공천에 탈락한 전 서울·경기 당협위원장 17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컷오프 대상 중진들을 수도권에 경선도 없이 내리꽂는 ‘돌려막기 공천’, 통합의 이름으로 경선 특혜를 주는 ‘철새 공천’”이라며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는 수도권 공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친노동’ 손잡은 민주·한노총

이해찬(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세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 의실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노동존중 5대 비전 20대 공동 약속’ 서명식을 마친 뒤 협약서를 손에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k@

1월 관리재정수지 1.7兆 적자

기재부 “비상경제시국 건전성 악화 불가피”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비상경제시국에서 피해극복·경기보강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1월 관리재정수지가 1조 7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가 1월에 적자를 나타낸 것은 2011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6조 6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악화가 예고된 가운데 연초부터 정부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1월 총수입은 51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감소했다. 진도율도 0.1%포인트(P) 하락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36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와 관세가 각각 2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총지출은 50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

월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사회보장성기금수지(2조 원 흑자)를 빼면 1조 7000억 원 적자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향후 추경을 포함하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추경 발표로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예산안(71조 5000억 원) 대비 10조 5000억 원이 늘어난 8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5%에서 -4.1%로 0.6%포인트(P) 악화돼 1998년 -4.7%를 기록한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일각에서 추경 규모를 40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결국, 재정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등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에 따라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서 1월 실적만으로 연간 재정지표 전망치를 단언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전가족 안전보장
가족을 지키는 모든 방법

순간을 넘어 일생의 행복까지
한화손해보험

가족의 행복이 곧 당신의 행복이기에
우리의 생각은 당신의 삶을 넘어섭니다
순간을 넘어 일생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당신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LIFE PLUS **한화손해보험**

LIFEPLUS는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이 함께합니다.

코로나19 ‘나비효과’…글로벌 은행권까지 휘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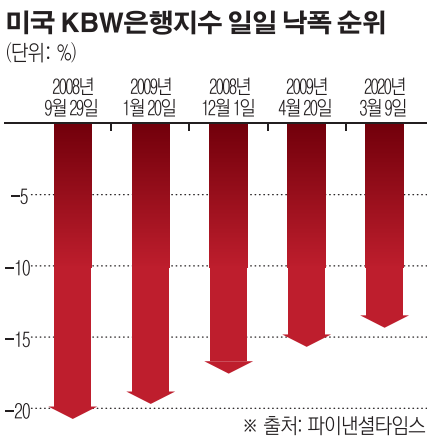
사우디·러 ‘원유 치킨게임’으로 석유업계 디폴트 위기 몰려
JP모건체이스·BOA 등 美 4대 은행 시총 하룻새 143兆 증발
美 정유업계 대출 부실 불똥 우려…유럽銀 주가도 추풍낙엽

전 세계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마치 나비효과처럼 연쇄효과를 촉발해 글로벌 은행들까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가 폭락으로 뉴욕증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지면서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은행, 웰스파코 등 미국 4대 은행 주가가 12~16% 폭락했다.

이에 이들 4대 은행 시총은 하루 만에 약 1200억 달러(약 143조 원) 증발했으며, 미국 은행업계는 2016년 10월 이후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고 FT는 분석했다. 미국 은행 주가를 종합한 ‘KBW은행지수’는 이날 13.9% 폭락했다. 이는 역대 다섯 번째로 큰 낙폭이다.

대서양을 건너 유럽 은행 주가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범유럽 스톡스뱅크지수는 13% 빠졌다. 프랑스 나티시스와 소시에테제네랄이 각각 18%, 크레디아그리콜이 17% 폭락했다. JP모건체이스의 키언 아부호세인 애널리스트는 “프랑스 은행 중에서도 나티시스와 크레디아그리콜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5~6%로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유가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던 은행 주가 쑥대밭이 된 데는 얹히고설킨 관계가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둔화를 막고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이미 최근 수 주간 주가가 하락일로를 걸었다. 여기에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 양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유가 전쟁까지 터져 석유업계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면서 은행들이 더욱 취약해졌다고 FT

는 지적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에 사우디가 산유량 감산을 추진했는데 러시아가 이에 반기를 들면서 감산이 무산됐다. 이에 격분한 사우디가 대폭적인 판매가격 인하와 증산을 선언하면서 유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 결과 국제유가가 최근 2거래일간 30% 이상 폭락해 배럴당 33~36달러로 추락하면서 글로벌 석유업계 대출 디폴트 리스크를 높였다. 이들 업체가 실제로 연쇄도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은행들도 부실 대출 위험에 놓이게 된다.

한편 오토노머스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의 석유산업에 대한 익스포저(Exposure·노출)는 2%에 불과하다. 그러나 석유업계가 자리 잡은 지역과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간접적인 익스포저는 막대하다는 지적이다. 셰일유업체가 밀집한 미국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지방은행 주가가 이날 20~30% 폭락한 것은 바로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탈리아 은행들은 또 정부의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이동제한령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탈리아 최대 은행 유니크레디트 주가가 13%, 인테사상파울루가 12% 각각 폭락했다. 이탈리아 은행권은 가뜰이나 유럽 재정위기 타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까지 받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간) 베이징의 군사의학연구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 신규 확진자 19명으로 ‘뚝’…진원지 우한 첫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했다. 시 주석이 우한을 찾은 건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발한 이후 처음이다. 자국 내 감염 확대를 통제했다는 자신감을 중국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우한에 도착해 의료진과 군 관계자, 지역 사회 근로자와 경찰관, 자원봉사자 등 코로나19와 싸워왔던 사람들과 환자, 주민을 만나 위문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한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다. 대신 리커창 총리가 1월 말 우한을 찾아 현지 전염병 대응을 확인했다.

우한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곳이다. 중국 정부는 춘제(설날) 연휴를 앞둔 1월 23일 우한과 주변 도시들에 대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를 취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전염병

막을 만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뒤늦게 강경하게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봉쇄 조치의 영향인지, 중국 본토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해 이날은 불과 19명으로, 1월 18일 이후 가장 적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당국의 대응에는 불만이 여전하다. 특히 코로나19를 최초로 경고해 ‘영웅’ 칭송을 받은 의사 리원량이 지난달 초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자 중국인의 분노가 더욱 고조됐다.

이런 불만을 완화하고자 중국 관영 언론들은 시 주석 띄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중앙(CC)TV는 지난 주말 “시 주석이 전반적인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며 “그는 대단한 선견지명과 통찰력을 보여줬으며 확고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칭송했다.

아울러 중국 언론들은 미국과 다른 서구권 국가의 초기 봉쇄 정책 실패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메뚜기 떼까지…속타는 파키스탄

면화 등 농작물 피해 30년 만에 최대
식량난 촉발…세계 경제 불황 전조

아프리카를 쑥대밭으로 만든 메뚜기 떼가 중동과 아시아로 진격하면서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최근 AFP통신은 대규모 메뚜기 떼가 파키스탄 농업지대를 습격해 약 30년 만에 최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에서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환금 작물인 면화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수도 카라치 부근에서는 이미 전체 작물의 절반이 망가졌다.

유엔은 지난해 아라비아반도를 덮친 호우와 사이클론이 전례 없는 메뚜기 번식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메뚜기의 산란 시즌이었던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강수량은 예년의 약 3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에서 인도에 걸쳐 농지에 큰 피해를 준 후 이란을 통해 파키스탄 남서부 사막지대에서 파키스탄 전역으로 날아들었다. 통신은 오랫동안 가뭄에 허덕여온 파키스탄의 농업이 이번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는 12년 연속 고도 인

플레이션에 고통받는 파키스탄에 식품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설탕 가격은 2배 가까이 뛰었고, 밀가루 가격은 15% 상승했다.

곤충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뚜기는 떼로 움직이게 되면 바람을 타고 하루에 100~200km를 이동, 가는 곳마다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며 곡식과 과일 농사를 엉망으로 만든다. 심지어 작은 그룹이어도 하루에 인간 3만5000명 분을 먹어치운다고 한다.

앞서 아프리카 소말리아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식량 위기가 불거지면서 25년만에, 이웃 나라 케냐에서는 70년 만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6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동아프리카 8개국, 중동 5개국, 남아시아 2개국(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새로운 메뚜기 떼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FAO는 각국에 약 1억38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다. 코로나19 여파로 각국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여력이 부족해서다.

전문가들은 메뚜기 떼가 촉발한 식량난이 새로운 공급망 혼란을 일으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배



해리 왕자 “이젠 완전히 떠난다” 영국 왕실에서 독립 선언을 한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부부가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연례 ‘영 연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마클 왕자비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는 반면 해리 왕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찰스 왕세자 부부, 윌리엄 왕세손 부부 등 왕실 고위 구성원이 모두 참석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이날 행사를 마지막으로 왕실 공무에서 물러난다. 런던/AFP연합뉴스

이탈리아 초유의 전국 봉쇄 확진 1만명 육박…콘테 총리 “6000만 국민 이동 제한”

이탈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1만 명에 육박하는 등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자 이동제한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초강수를 뒀다.

9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북부 지역에만 적용하던 이동제한령을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전날 행정명령으로 북부 롬바르디아주 전역과 에밀리아-로마냐, 베네토, 피에몬테, 마르케 등 4개 주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이동을 제한했는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자 이를 전

국으로 넓혔다. 코로나19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한 북부를 넘어 남부 지역으로까지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실상 나라 전체에서 이동을 제한하는 초강수만이 감염 억제에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이탈리아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가혹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797명(24.3%) 늘어난 9172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망자도 전일 대비 97명

(26.5%) 증가한 463명으로, 역시 중국(312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동제한령은 10일 0시 기준으로 발효되며, 다음 달 3일까지 6000만 명의 이탈리아 국민은 업무·건강 등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곤 거주 지역에서 어느 곳으로도 이동할 수 없다. 대중교통은 정상운행하지만 모든 초·중·고교와 대학은 4월 3일까지 휴교한다. 레스토랑과 술집은 오후 6시 문을 닫아야 한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이번 결정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집에 머무르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다. 이탈리아의 미래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렸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책임이 무겁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지금 바로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 이탈리아를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준법감시인확인필 제19-1-0565호
(브랜드전략파트, '19.12.16)

요즘 시대, 걸으면 걸을수록 보험료도 내려가는 시대

걸으면 걸을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삼성화재 애니핏으로
보험료 결제는 물론,
다양한 상품 서비스 구매까지
삼성화재 포인트 몰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만나보세요.

당신의 일상에 건강은 기본,
다양한 혜택까지 더한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anyfit

365일 당신의 걷기 파트너



삼성화재 건강보험
피보험자 누구나



걷기만 해도 쌓이는
애니포인트
*걸음수 목표 달성시 1년 최대 6만원



플레이스토어 혹은
QR CODE를 찍고
애니핏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적립한 포인트로
보험료 결제



전용 포인트몰에서
다양한 물품 구매

*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를 참고해 주세요.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은행서 보증심사… 금융위 ‘코로나 대출’ 지원 가속도

신보 ‘지중銀 업무 위탁’ 확대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에 위탁하는 대출 업무의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금융부담 대응 현안 브리핑’을 열고 피해기업 자금신청 지연 문제 해결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해 일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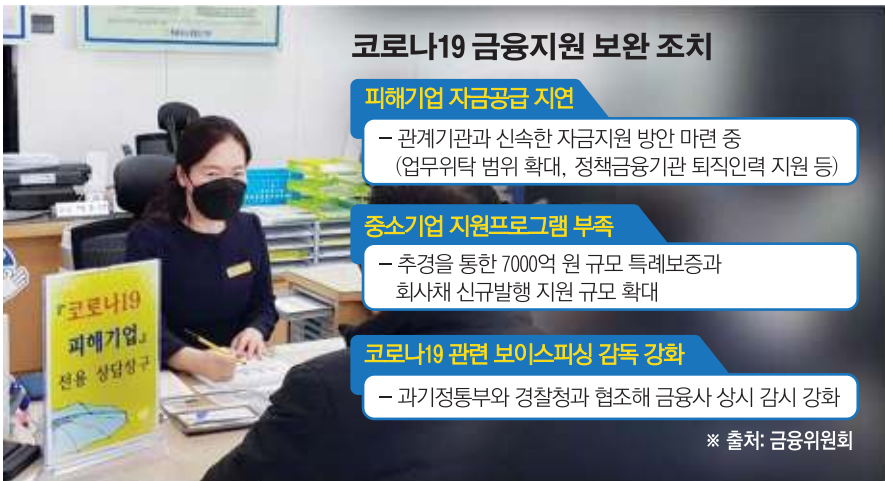
현재 피해 기업의 자금 신청이 지역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부 대출에 70~90% 집중되고 있지만, 보증심사가 길어져 자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정보도 부족하고, 신청해도 최대 두 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관련 사항 안배가 부족해 정책

전산시스템 연결 통해 신속 처리 피해자금 신청 지연 해결책 모색 특례 보증·회사채 발행도 확대

한 내용이 안 알려지는 일도 있고 소상공인의 경우 정보가 부족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금융 지원까지) 최장 두 달까지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은행 부분위탁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 사이의 업무 절차를 신속화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관계 기관과 함께 업무위탁 범위 확대와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경을 통한 특례보증과 회사채 신규발행 지원 규모 확대 등



약 2조9000억 원의 지원안을 마련한다.

다만, 금융지원 지연 문제를 단시간 내 해결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자치단체소관으로 금융권과 전산 연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전전화 문제를 관련 부

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업무 세부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은행이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중기부에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감독 강화와 금융권 업무 연속성 계획을 점검해

금융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3~6일까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직접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 등 두 곳을 방문해 점검하기도 했다. 일일 상황은 금융사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실무자가 유선으로 점검을 했다.

한편, 서울 구로구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직원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점포가 60여 개가 폐쇄된 상황이고 금융권 확진자는 110여 명”이라며 “재택근무는 보안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고객 서비스를 연속한다는 목표와 보안 우려 사이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센터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에서 최소 5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에서 보고된 집단감염 최대 규모 사례다.

정용욱 기자 dragon@

‘토스 신용카드’ 내달 나온다

하나카드·비자와 협업 출시

비바리퍼블리카는 하나카드와 협업해 PLCC(상업자표사카드) 상품인 ‘토스 신용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카드는 PLCC카드로 토스 브랜드로 출시되며, 하나카드가 카드 제작과 발급을 담당하고 토스가 카드회원 모집과 마케팅 등을 맡는다. 토스 신용카드는 다음 달 1일 정식 출시되며 만 19세 이상의 토스 회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연회비는 1만 원이다.

토스 신용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 및 추가 조건을 충족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3%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3개월 이후로는 이용 실적에 따라 연말까지 결제 금액의 0.5~1.5%를 캐시백으로 준다.

비자는 토스 신용카드 해외 결제 파트사를 맡았다. 비자는 기존 플래티늄 등급 이상의 상품에만 제공하는 영 프리미엄 서비



스를 토스 신용카드에서 지원한다. 영 프리미엄 서비스는 다이닝, O2O 라이프스타일,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준다. 호텔스닷컴 특별 할인 서비스와 진에어 빠른 체크인, 수하물 우선 서비스, 국내 부티크 호텔 숙박 및 F&B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토스는 22일까지 사전 예약 행사를 진행한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토스 브랜드의 첫 신용카드인 만큼 풍성한 국내외 이용 혜택을 담아 다양한 디자인의 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렌터카 자산 5000억 인수

수수료 인하에 새먹거리 발굴 “자동차금융 시장 지배력 강화”

신한카드가 현대캐피탈과 5000억 원 규모의 장기렌터카 자산 인수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은 자동차금융 확장을 노리는 신한카드와 주 업무인 자동차할부금융 여력 확대를 위한 현대캐피탈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를 계기로 카드사와 캐피탈사 간 자동차금융 ‘합종연횡’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신한금융그룹은 신한카드가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자산 5000억 원을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인수 사유로는 “수익자산 확대를 통한 이자 수익 증대”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카드수수

료 인하 이후 새 먹거리 찾기에 나선 신한카드와 신사업 여력 확보를 모색 중이던 현대캐피탈의 사정이 일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계약은 신한카드와 현대캐피탈 모두에게 이득이다. 먼저, 신한카드는 최근 공격적인 자동차금융 시장 확보에 나섰다. 현재 카드사는 주 수입원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지난해 자동차금융 취급액 약 2조8900억 원으로 2018년보다 17% 이상 늘렸다. KB국민카드가 그 뒤를 이어 2조7700억 원가량을 취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사업 일부를 인수해 곧장 영업을 시작해 자동차금융 분야에서도 1위 수성을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카드업계에 내 오토금융(자동차금융) 사업 시장 지배력 강화 차원”이라며 “이번 장기렌터카 자산 인수를 통해 기존 사업과 인수·합병 사업 간 균형감 있는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자산인수를 통해 장기 수익자산 확보와 기존 거래 중인 우량 고객을 통한 신규 영업 확장 등의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카드사와 캐피탈사 간 추가 협력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 자동차 할부금융 수익은 2015년 930억 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825억 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또 카드사는 신차 중심의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서 벗어나 중고차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서지연 기자 sjy@

“은행 창구, 점심시간도 한산”… 코로나發 ‘언택트’ 바람

금융업계 ‘新풍속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되면서 금융권에도 대면거래를 꺼리는 ‘언택트’(untact)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고객들의 지점 방문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이용이 크게 늘었고, 금융사들은 재택근무와 근무 장소를 분산하는 이원화 근무 등을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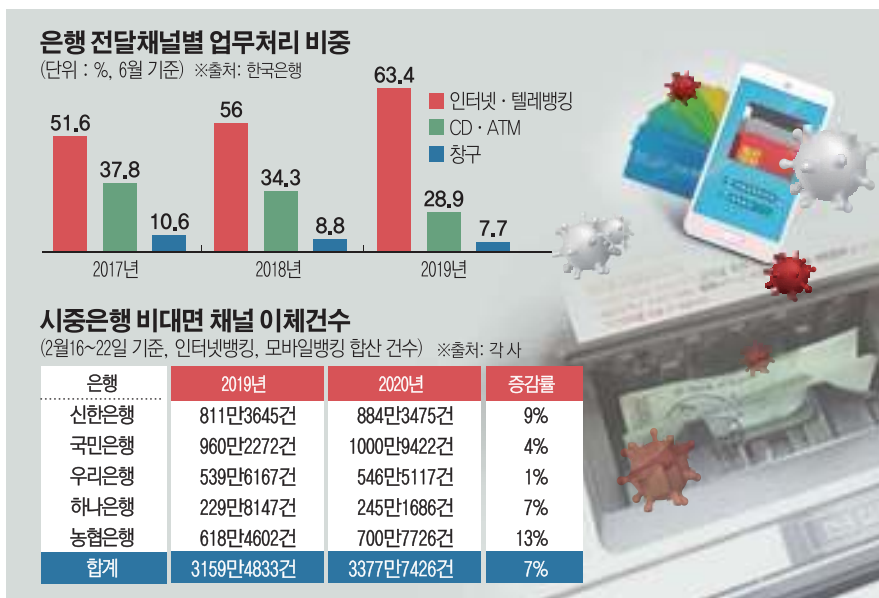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 창구 거래(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건수 기준) 비중은 7.7%까지 감소했다. 대신 비대면(자동화기기·텔레뱅킹·인터넷뱅킹)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92%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지점 등 기기 설치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자동화기기(CD/ATM) 사용 비중은 28.9%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세를 보이던 지난달 16~22일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건수는 3377만742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59만4833건에 비해 7% 증가한 수치다. 농협은행이 전년보다 13%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신한은행이 884만3475건으로 전년(811만3645건)보다 9% 늘었다. 하나은행도 245만1688건을 기록, 전년(229만8147건)보다 7% 증가했다. 거래 고객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1000만9422건)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비대면 거래 이체 건수를 기록했다.

반면 지점 방문자 수는 30~40%가량 줄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이후 가장 바쁜 시간대인 점심시간에도 방문자가 한 손에 꼽을 정도”라는 말했다.

은행들도 당분간 비대면 거래 관련 수수료를 안 받는 등 지원에 나섰다. 고객의 불안감도 줄이고 은행 지점 직원들을 위해서도 대면보다 낫다는 판단에서다.

은행장들은 최근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지역의 비대면 거래 고객에게 수수료를 감감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달 31일까지 전 개인고객의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



시중銀, 비대면거래 3378만건

작년 동기 대비 219만건 증가

지점 방문자수 최대 40% 감소

재택 확산·근무지 이원화 등
업계 근로체계 변화 ‘시험대’

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비대면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사들이 재택이나 분할근무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사는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임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에도 금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본점 부서를 4~5개조로 나눠 인력 2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KB국민은행도 본점 인력에 대해 근무 공간을 분산하는 동시에 지난달 27일부터 직원 15% 수준에서 재택근무를 실시 중이다. NH농협은행은 본점 인력 및 영업본부 전

직원에 대해 전달 28일부터 4개조로 편성해 총 인원의 30% 정도가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본점 인력은 신관에 마련된 대체 사업장으로 분리해 근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본점 폐쇄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이 근로 체계 변화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택·원격 근무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면 영업을 필수로 여겼던 보험사들도 비대면 영업을 권장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온라인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단기보험·미니보험 등을 출시하고 있고 전자계약이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카드사들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언택트’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비씨카드는 GS 리테일과 제휴해 ‘저스트 워크 아웃(just walk out)’ 기술을 접목한 무인편의점 결제 서비스를 선보였다. 신한카드는 CU 편의점과 함께 얼굴인식 결제방식인 ‘페이스페이’를 시범 서비스 중이고, 롯데카드는 세븐일레븐과 함께 손바닥 정맥인증 방식인 ‘핸드페이’를 내놓았다.

박은평 기자 pepe@

“유튜브로 고객 만납니다” 보험사 ‘우회 마케팅’ 활발

보험사들이 유튜브를 통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면영업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젊은 세대 고객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은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에 ‘보험탐구생활’ 시리즈를 제작해 선보였다.

이 시리즈는 현대인에게 노출된 각종 질병, 사망, 노후자금 부족 등 다양한 위험과 이에 대한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을 토크쇼 형식을 빌려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10분 분량의 영상

상을 업로드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화반점, 삼포세대, 나는 봄, 애니펫의 동물연구소 등으로 색션을 나눠 2030세대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다. 구독자 수도 1만5000여 명에 이른다. 삼성생명도 히릿(Hitit)튜브를 통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면영업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젊은 세대 고객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연예인을 앞세워 유튜브 제작에 나선 보험사도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부터 개그맨 김재우가

홍국생명 ‘홍씨TV’·삼성생명 ‘히릿튜브’ 등
영상으로 혜택·상품 소개해 보험 거부감 없애

물이다. 이번에 선보인 ‘보험탐구생활’ 시리즈 1편은 가입한 지 오래됐거나 가입 유무를 알 수 없는 내 보험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ABL생명은 앞으로 매월 △암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 △나이별로 가입하면 좋은 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새로운 시리즈 영상물을 업로드 할 예정이다.

최근 홍국생명도 유튜브 채널 ‘홍씨TV’를 선보였다. ‘홍씨TV’는 ‘홍국인사(Insider)’의 줄임말로 흥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채널이라는 뜻이다. 홍국생명은 직원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홍국 브이로그(V-log)’와 잠시 업무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는 ‘홍국투어’를 제작·업로드한다.

삼성화재는 가장 많은 629개의 동영상

생명도 인기를 끌고 있는 장성규를 신규 모델로 TV 광고를 선보였으며 풀버전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또한 배우 김보성과 함께 청춘들을 위로하는 ‘위로시(詩)대’ 시리즈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영상 콘텐츠를 통해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해 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보험은 어렵다는 거부감을 없애고, 쉽고 친숙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휴온스

빛 나는 하루
빛 나는 피부

이너셋 허니부쉬

THE 더 예뻐지고 19 허니부쉬
THE 더 아름답고 19 허니부쉬

이너셋 허니부쉬 ▼

검색

*부원료 :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함유

고객센터 : 1800-4414

<1회 충전>

삼성 ‘800km 주행’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

차세대 전고체전지 ‘네이처 에너지’ 게재

삼성전자가 전기차 배터리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전지(All-Solid-State Battery)’의 수명과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크기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원천기술을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술은 1회 충전으로 800km(서울-부산 왕복) 주행 및 1000회 이상 재충전이 가능하다. 기존의 ‘리튬-이온전지(Lithium-Ion Battery)’와 비교해 대용량 배터리 구현이 가능하고,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 일본연구소(Samsung R&D Institute Japan)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다.

전고체전지는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

기존 리튬이온전지 절반 크기 1000회 이상 재충전도 가능

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고체전지에는 배터리 음극 소재로 ‘리튬금속(Li metal)’이 사용된다. 하지만 리튬금속은 전고체전지의 수명과 안전성을 낮추는 ‘덴드라이트(Dendrite)’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술적 난제가 있다.

덴드라이트는 배터리를 충전할 때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는 리튬이 음극 표면에 적체되며 나타나는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체다. 이 결정체가 배터리의 분리막을 훼손해 수명과 안전성이 낮아진다.

삼성전자는 덴드라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고체전지 음극에 5마이크로미



‘네이처 에너지’에 ‘전고체전지’의 수명과 안전성을 높이고 크기는 반으로 줄이는 기술을 게재한 유이치 아이하라(왼쪽부터) 삼성전자 엔지니어, 이용건 연구원, 임동민 마스터.

터(100만분의 1미터) 두께의 은-탄소 나노입자 복합층(Ag-C Nanocomposite Layer)을 적용한 ‘석출형 리튬음극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이 기술은 전고체전지의 안전성과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보다 배터리

음극 두께를 얇게 만들어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리튬-이온전지 대비 크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임동민 마스터는 “이번 연구는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혁신적으로 늘리는 핵심 원천기술”이라며

“전고체전지 소재와 양산 기술 연구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종합기술원 특성상 미래 먹거리 개발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제 양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려 정확한 양산 시점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회 충전으로 800km를 주행할 수 있고 1000회 이상 재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내놔도 시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상용화되는 데 몇 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삼성의 미래 선행기술 연구개발의 중심이다. 최근 ‘자발광 QLED 상용화 가능성’ (작년 11월, Nature)과 ‘비(非)침습 혈당 측정 가능성’ (올해 1월, Science Advances)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세계적 학술지에 잇따라 게재하며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제네시스 G80’ 美서 대박 조짐

‘3세대’ 디자인에 호평 일색 카앤드라이버 “과감한 스타일” 모터트렌드 “최고 럭셔리 세단” 전면 그릴과 두 줄 램프 주목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3세대 G80 디자인(사진)을 공개하자 미국 언론의 호평이 쏟아졌다. 10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지난 5일 G80 3세대 모델의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의 자동차 권위지 카앤드라이버(Car and Driver)는 3세대 G80의 전면부 디자인에 주목했다. 이 매체는 “신형 G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특징인 오각형 그릴과 헤드램프를 결합한 과감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럭셔리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블로그(Autoblog)도 “이전 G80은 민첩한 핸들링과 뛰어난 마감이 특징인 잘생긴 4도어 세단이었다. 신형 G80은 GV80에 먼저 적용된 디자인 정체성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무엇보다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상화한 크레스트 그릴과 측면으로 길게 이어지는 쿼드램프가 눈에 띈다”

대한항공 카톡 챗봇 ‘대한이’ 운영

대한항공은 10일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한 챗봇 상담 서비스 ‘대한이’를 운영한다. 대한이 챗봇 상담 서비스는 항공여행 계획 단계부터 탑승할 때까지 생기는 궁금증들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모바일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든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여행객이 대한항공에 대한 궁금증을 대

고 호평했다.

미국 모터트렌드 역시 “최고의 신형 럭셔리 세단”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모터트렌드는 “최고의 신형 럭셔리 세단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G80의 옆모습은 G90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좀 더 짧은 차체로 인해 어깨선이 보다 잘 드러난다. 새로운 패스트백 디자인 또한 G80에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 매체 모터1(Motor 1)은 G80의 두 줄 디자인 테마에 대해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두 줄’ 디자인 테마는 헤드램프에서 시작해 측면에 걸쳐 흐르는 캐릭터 라인과 함께 두드러진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의 유명 자동차 매체인 로드앤트랙(Roadandtrack)은 G80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두고 “신형 G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롭고 멋진 디자인 언어를 통해 BMW 5시리즈, 아우디 A6,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등과 경쟁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제네시스 측은 “G80에 대한 해외 매체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라며 “특히 G80 출시가 확정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한이와의 카카오톡 대화창에 간단한 단어 나 문장으로 질문하면, 챗봇이 자동으로 바로 답을 하거나 해당 단어가 포함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한다. 직접 질문을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미리 구성된 메뉴들을 클릭해 대한항공 항공 스케줄과 출발·도착 정보 등의 운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저렴한 항공료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로그인 하거나 모바일 체크인까지도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살균·소독에 꽃힌 中…LG ‘UV 가전’ 주목

냉장고·정수기·공기청정기 등 LG UV LED 라인업 출시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가전시장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살균, 소독 기능을 갖춘 가전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LG전자의 UV(자외선) LED 가전도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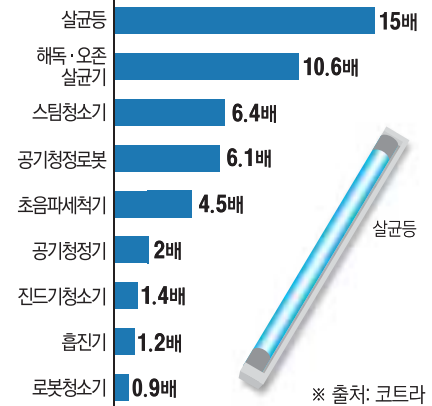
10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에서 살균 가전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티볼, 징둥, 판뒤뉘 등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살균가전’ 관련 카테고리 를 따로 개설했다.

특히, 올해 춘제(중국 설날) 기간 살균 등과 같은 기능성 램프는 폭발적 인기를 끌었으며, 스타밍소기, 해독·오존 살균기 등 신규 제품은 판매량이 증가했다.

춘제 기간 중국 인터넷 쇼핑몰 티볼에서 살균등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증가했다. 해독·오존 살균기는 10.6배, 스타밍소기는 6.4배 판매가 늘었다. 공기청정로봇, 초음파세척기, 공기청정기, 진드기청소기, 흡진기 등의 판매량

중국 춘제기간 가전제품 판매 증가

(현지 온라인몰 ‘티볼’ 2019년 대비)



도 크게 늘었다.

살균, 소독 가전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은 국내에서도 뜨겁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를 키워드로 한 올 1~2월 온라인 정보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1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 제조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져 LG전자는 올해 1~2월 정보량이 2만 5062건으로 전년 1만2291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삼성전자도 1만8167건으로 전년(7656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갤럭시 버즈+, 애플 에어팟에 판정승

외신들 ‘무선이어폰’ 비교 “사운드·배터리·가격 우수”

삼성전자 무선이어폰 갤럭시버즈 플러스(사진)가 국내외에서 연일 호평받으며 에어팟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오디오 제품 리뷰 전문매체 사운드가이즈는 갤럭시버즈 플러스에 8.5점을 줬다. 에어팟 프로 7.7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버즈 플러스는 세부항목인 사운드 퀄리티에서 9.7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했다. 반면 에어팟과 에어팟 프로는 각각 7.3점, 7.7점에 불과했다.

독일 IT 매체 컴퓨터빌드 역시 버즈 플러스를 무선아이폰 부문 1위에 올렸다. 매체는 “사운드가 훌륭하고, 11시간 동안 지속되는 배터리 수명이 뛰어나다”며 “에어



팟 프로보다 가격도 100유로(약 13만 원) 저렴하다”고 평가했다. 씨넷과 엔가젯 등도 버즈 플러스가 전작의 불만 사항을 개선했다며 호평했다.

국내 소비자 반응도 뜨겁다. 버즈 플러스는 국내에서만 지난달 14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25만 대 이상 판매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기존 화이트·블랙·블루 색상 외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핑크·레드 색상을 국내에 출시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송영록 기자 syr@

치료센터·마스크 지원 이어 DB그룹, 코로나 10억 성금

DB그룹은 1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의료구호물품 지원, 자가격리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지원, 방역 및 예방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DB그룹은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5일 경기광주시에 위치한 그룹 인재개발원을 치료시설로 제공한 바 있다.

또 2월 초에는 계열사인 DB손보가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저소득 아동 및 노약자들에게 1억 원 상당의 방역 마스크를 지원하기도 했다.

DB그룹은 그동안 그룹 내 주요 사업의 하나로 사회공헌 분야를 포함시킬 정도로 사회공헌 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송영록 기자 sy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대한민국 의료진·공무원 여러분 당신이 모두의 백신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해
철야의 피로를 버텨내며
끊임없이 추적하고 방역하는 당신

잠간의 쉴 틈도 없이
환자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당신

국가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여러분의 노력에
하나금융그룹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SK이노 “배터리 독자 개발 증명할 수 있다”

美ITC 조기패소에 이의제기
“제재 과하다”…재검토 요청
LG화학과 다른 디자인 주장
“美 전기차 시장에도 악영향”

SK이노베이션이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의제기를 하며 “캐머런 엘리엇 ITC 행정판사(ALJ)의 ‘조기패소’ 결정은 제재의 정도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10일 ITC가 공개한 SK이노베이션 측 변 호대리인의 심사 신청서에 따르면 대리인은 “조기패소(Default Judgment),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해 위원회의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언급한 조기패소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엘리엇 ALJ가 문제들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리인은 “이번 조사의 특정 이슈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분실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문서 보존의 의무를 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불리한 판단이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문제의 정도와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기패소’라는 궁극적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LJ의 합리적 제재는 ‘문서 삭제’ 문제와 연관이 있는 이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그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리인은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LG화학의 직원을 채용해 영업비밀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이 LG화학에 현재까지 다르고 독자적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TC가 이의제기를 수용해 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을 보일 기회를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리인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는 LG화학이 사용한 것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했다”며 “실제로 LG화학 출신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도 다임러,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체와 EV 배터리 생산 계약을 따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리인은 “이번 재판에 대한 신중한 결정은 이 분쟁의 밑바탕에 있는 이해관계에 비추면 매우 중요하다”며 “LG화학이 요구한 제재안은 포드와 폭스바겐(VW)용 전기차(EV) 배터리의 미국 생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공급망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에 EV용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을 위한 제조 공장을 짓고 있다. 16억7000만 달러(약 2조23억원)를 투자해 만든 이 공장으로는 2000명 이상의 미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완성차 회사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SK이노베이션 측은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은 법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과의 경쟁을 중단하거나 지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미국 내 주요 업체들은 고성능 배터리의 적절한 공급 없이 전기차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유튜버 ‘영상 제작용’ 마이크 출시 앞둔 ‘LG G9’에 넣는다

ASMR 레코딩·보이스쥬 등
콘텐츠 제작 기능 상표출원

LG전자가 차세대 프리미엄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LG G9 씽큐’에 콘텐츠 제작 특화 기능을 담는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특허청에 스마트폰 사운드 기능과 관련된 상표를 대거 출원했다.

상표명은 ‘ASMR Recording(ASMR 레코딩)’, ‘Voice OutFocus(보이스 아웃포커스)’, ‘Voice Zoom(보이스쥬)’, 3D 사운드, 인공지능 사운드, ‘Timelapse Control(타임랩스 컨트롤)’ 등이다. 출원한 상표를 보면 콘텐츠 제작에 특화된 기능 명칭이다. LG G9 씽큐 등에 탑재될 기능명을 상표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MWC 2020에서 공개할 예정이던 LG G9 씽큐를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국내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LG전자가 출원한 기능 중 일부는 해외 시장에 최근 출시한 LG V60 씽큐에도 탑재됐고, G9 씽큐에만 탑재되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ASMR 레코딩은 녹음용 마이크를 써서 영상과 별도로 소리를 따로 녹음하고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영상과 소리를 합쳐야 하는 과정을 생략하게 해준 기능이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LG V50s 씽큐에 처음 탑재됐는데, 이번에 기능이



LG전자가 LG Q51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손잡은 유명 유튜브 채널 ‘이십세들’.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스마트폰 마이크보다 3배가량 성능이 향상된 고감도 마이크를 이용해 미세한 소리도 깨끗하게 잡힌다.

특히 기존 ASMR은 소프트웨어로 구현했는데, 이번 G9 씽큐에선 하드웨어적으로 보완되면서 성능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또 보이스쥬는 동영상 촬영 시 특정 소리만 키워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다. 프레젠테이션하는 사람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밖에 ‘타임랩스’는 액션캠 등에 탑재됐던 기능이다.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때 좋으며, 빠르게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특허 출원에 대해 “상표 선점 차원에서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붉은 대게살과 소스의 황금비율 몬스터크랩 바디



진~한
대게딱지장에
비벼! 비벼!

매콤한
초고추장에
비벼! 비벼!

한성
기업 HANSUNG
ENTERPRISE

“크라미”와 “Crami”, “몬스터크랩”과 “Monster Crab”은 한성기업(주)의 등록상표입니다.
©2019. HANSUNG Enterprise



프리우스C 크로스오버 2590만원부터
토요타 코리아가 10일 ‘프리우스 C 크로스오버’(사진)와 ‘2020년형 프리우스 AWD(사륜구동)’를 출시했다. 프리우스 C 크로스오버는 프리우스 C 모델의 장점인 공간성과 효율성에 개성적이고, 역동적인 스타일을 더했다. 또한,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뒷좌석 하단에 위치시켜 넉넉한 적재공간도 확보했다. 1.5리터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트랜스액슬이 조합된 파워트레인은 리터당 연비 19.4km, 가격은 2590만 원이다. 프리우스 AWD의 가격은 3693만 원이다. 사진제공 토요타코리아

‘5G 알뜰폰’ 경쟁 불붙었다

세종텔레콤, 5G 고객에 꺾S20 보조금 45만9000원 지원
에넥스텔레콤은 월 3만원대 국내 최저가 5G 요금제 출시

알뜰폰 업체들이 ‘5G 요금제’ 출시로 분
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10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
전을 비롯한 대형 사업자부터 중소 알뜰폰
업체까지 5G 요금제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요소는 단연
‘저렴한 요금제’로,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주류를 이룬다. 알뜰폰 업계는 정부 주도
로 이뤄진 이동통신 3사의 5G 공급망 단
가 이하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분
석이다. 여기에 공급 단가가 내려간 만큼
알뜰폰 업체 역시 이익을 최소화해 요금제
를 출시하는 등 세살 깎기 경쟁도 한몫했
다.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 최대어인 삼성
전자 ‘갤럭시S20’ 시리즈를 알뜰폰 업체
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는 점도 경쟁력
을 높였다.

세종텔레콤 알뜰폰 브랜드 스노우맨은
업계 최초로 ‘갤럭시S20’과 ‘갤럭시 S20
Ultra’에 단말기 보조금 42만9000원을 지

원하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최신 휴대폰
할인 프로모션’을 4월 30일까지 진행한
다. 최근 MVNO(알뜰폰) 업체에서는 중
저가 5G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지
만, 고가 스마트폰의 수급과 구입에 대한
고객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에 스노우맨은 알뜰폰 출범 당
시의 기조에 걸맞게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실제 대안을 제시, ‘파격적 5G요금제’ 제
공과 더불어 도매 대가 인하에 따른 수익
을 단말보조금에 지원하는 판매정책을 선
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갤럭시S20의 구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는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스노우맨 5G
슬림’을 선택하면 42만9000원의 보조금
을 지원받아 월 기본료와 할부금을 포함
해 9만1195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 지원
금은 이통 3사(MNO)의 동일한 스펙 요
금제와 비교해 ‘공시 지원금’ 혹은 ‘25% 선택 약정’을 적용하더라도 13만

원가량 저렴하다. ‘스노우맨 5G 슬림’은
월 기본료 5만5000원으로 8GB 데이터를
제공,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1Mbps
속도로 추가 요금 걱정 없이 데이터를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꺾
럭시 S20 Ultra 역시 ‘스노우맨 5G 슬
림’을 24개월 약정 가입 시 42만9000원
의 보조금을 받아 월 10만6498원에 구입
가능하다.

에넥스텔레콤의 알뜰폰 브랜드 A모바
일도 LG유플러스망 알뜰폰 ‘5G 요금제’
를 국내 최저가로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
이는 LG유플러스망 5G 요금제는 음성·문
자 무제한 제공은 물론 데이터까지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 2종으로 마련됐다.
먼저 ‘A 5G 라이트’ 요금제는 월 3만
6300원(부가세 포함)에 음성·문자 무제
한, 데이터 9GB를 제공하며 소진 이후 1
M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 가능하다. ‘A
5G 스페셜’ 요금제는 월 6만500원(부가
세 포함)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180
GB를 제공하며 소진 후에는 10Mbps 속
도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이재훈 기자 yes@



“편의점에서 알뜰폰 가입”

LG헬로비전 모델이 CU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CU 안심
유심’ 요금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헬로비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건설기초소재로 삼표그룹 ‘친환경 사업’ 속도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인 삼표그룹이
친환경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
업 부산물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건설
기초소재로 활용, 자원 재활용과 환경개선
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10일 삼표그룹은 각종 산업 부산물을 건
설기초소재로 자원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표그룹 계열사로 충남 보령·당진과 전
남 여수 3곳에서 플라이애시(Fly Ash)
공장을 가동 중인 에스피네이처는 화력발
전소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해 콘크리
트 제조과정에서 시멘트를 대체하는 혼합
재를 생산하고 있다. 또, 충남 당진과 천안
2곳의 공장에서는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Slag)를 가공해 건설기초소재인
고로슬래그시멘트를 만들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생활쓰레기를 시멘트 생산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삼척
시와 함께 ‘가연성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
리시설’을 건립한 삼표시멘트는 선별된 폐
비닐 등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시멘트 생산
연료인 유연탄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시설은 하루 70t의 생활 폐기물을 처
리할 수 있다. 현재 연간 약 2만t의 생활
폐기물이 이 시설을 통해 연료로 활용된
다. 시멘트 산업에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의 모범 상생 사례로 꼽힌다.

삼척시는 “위생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삼표그룹은 건설기초소재 기업 중 유일
하게 친환경 사업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
다. 에스피네이처 환경자원부문을 버려진
고철, 폐자동차, 폐가전제품 등을 활용해



삼표그룹 계열사 에스피네이처 당진 슬래그공장.

철근의 주재료인 철스크랩을 가공하고 있
다. 친환경 소각장과 폐수 슬러지(하수 처
리 시 생기는 침전물) 건조시설 등도 운영
중이다.

삼표그룹은 이 같은 자원 재활용 등 친
환경 사업이 점차 심각해지는 국내 폐기물
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삼
표그룹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버려
진 산업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에 큰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표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이익 창출에 기여할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자원 재활용 등 친환
경 사업은 삼표그룹의 실천 방안 중 하나”
라며 “앞으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에 동참
하고 친환경 사업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지
속적으로 투자해 ‘친환경 빌딩 머티리얼즈
1등 기업’이라는 삼표그룹의 비전을 실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희 기자 che@

중기부 “노란우산 대출 2조로 확대”

하루 평균 대출액 99억… 코로나 이후 2배 가까이 늘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의 일
평균 대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이후 99억 원을 기록했
다. 지난해 일 평균 대출이 59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
면 2월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노란우산
의 일 평균 대출 건수는 949건이며, 대출
규모는 일 평균 9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 노란우산의 일 평균 대출은 610건,
대출 규모는 59억 원이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폐업, 노령, 사망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제
도다. 2007년 중기중앙회가 도입해 2월 말

기준 총 125만 명이 가입해 12조 원의 부금
이 조성돼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3일
노란우산의 대출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올해 2
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해 대출 규모는 1조4000억 원이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
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지역본부나 센터를 방
문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노란우산 앱
설치)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신청 당일 즉
시 대출이 가능하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中企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공기청정기’

경동나비엔, 사업 목적 추가
공기질 관리 솔루션 사업 확대

산업용 공기청정기 세계 1위
신성이엔지, B2C시장 도전장



이달 말 주주총회를 앞둔 중소기업
중 공기청정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기업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공기청정기 시장은 급
성장했다. 10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올
해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300만
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TV, 에어
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각각 연간 200
만 대 수준으로 판매되는 것과 비교하
면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계절을 타지
않는 필수가전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본래 사업에 공기청
정 사업을 추가·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보일러로 유명한 경동
나비엔이다. 경동나비엔은 이달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업 투자를 위
해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 △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 제품 제조 판
매 △액체 여과기 제조 및 판매 등을 사
업 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 중 가정

용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는 지난해 말
출시한 ‘TAC(종합 공기 질 관리 솔루
션·Total Air Care)’ 기기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말 ‘나비엔 청
정환기시스템<사진>’을 출시했다. 실
내 공기 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토
털 에어 케어(Total Air Care) 기기로
공기 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이다. 경동나비엔은 “기존 공기청
정기 시장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청정
환기’라는 새 시장을 개척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동나비엔은 청정, 환기
뿐 아니라 습도, 온도 조절 기능 등을
추가한 청정환기시스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클린룸 설비 업체이자 태양광 모듈
제조사인 신성이엔지도 이달 27일 정

주주총회에서 공기 청정 관련 내용을
사업 목적에 대거 추가할 예정이다. 신
성이엔지가 추가하는 사업 목적은 △가
정용 기기 제조·판매업 △환경 관련 기
술연구, 대기 및 수질분석 △환경영향
평가대행업 △자가측정 대행업 △가정
용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 △공기 질
측정 및 분석서비스업 △다중이용시설
공조시스템 제조 및 서비스업 등이다.

신성이엔지는 산업용 공기청정기인
클린룸 팬필터유닛(FFU:Fan Filter
Unit)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이 급성장하
고 있어 신성이엔지는 지난해부터 B2C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시장에도 본
격 진출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시한
천장형 공기청정기 ‘퓨어루미’의 반응
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이 제품은 조명
과 공기청정기의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공기청정기로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판
매 5000대를 기록했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가정용·사무
용 공기청정기 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려
고 예전부터 계획했고, 사업 목적 변경
은 그 일환”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출
시한 퓨어루미의 시장 반응도 좋아 자신
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LG U+ ‘스마트 향만 시대’ 연다

로봇 개발사 ‘포테닛’과 5G 기반 물류 자동화 협력

LG유플러스는 무인자동화 로봇 개발 전
문업체 포테닛과 ‘5G 기반 스마트 향만 물
류 자동화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5G
스마트 향만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물류
자동화’ 분야가 중심이다. 포테닛이 보유하
는 물류 설비의 무인화·자동화 기술과 LG유플
러스의 5G 기술 등을 결합한 솔루션을 구
축하고,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5G 기반 무인 설비 자율
주행 기술 고도화 △무인 설비와 5G 네트

워크 인프라 연동 △모바일 에지 컴퓨팅
(MEC) 기반의 관제 시스템 구축 △초저
지연 영상전송 기술 기반 무인 설비 원격
제어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양사는 상반기 중 향만 물류 설비의
무인 자동화를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하
반기에는 현장의 물류 설비와 환경을 분석
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실제
연구개발과 구현된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
용해 서비스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물류 자동화가 상용화
되면 향만 내에서는 수동 조작 없이 다수의
물류 설비가 자율주행으로 컨테이너를 운
반하고, 관제센터에서는 5G 통신을 통해
소수의 인원으로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등
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비용 절감을 통한
스마트 향만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작년 8월부터 서호
전기와 손잡고 부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5
G 상용망에 기반한 스마트 향만 운영을 실
증 중이다. 연내 크레인 자율주행과 물류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고 내년 상용화를 준
비하는 등 ‘5G 스마트 향만’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yes@

오비-하이트진로, 맥주시장 점유율 ‘신경전’

1·2위 순위엔 변화 없지만
산정기준 따라 점유율 변화

오비는 ‘매출액’ 기준 유리
하이트진로 “판매량으로”

맥주시장 1·2위 간 점유율 신경전이 접입가경이다. 양사가 맥주 소매 시장의 점유율 산정 기준을 두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매출액을, 하이트진로는 판매량을 각각 기준으로 적용한 점유율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매출액이나 판매량 모두 점유율 순위엔 변동이 없음에도 이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배경은 점유율 수치 때문이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오비맥주의 점유율은 49.7%까지 올라가지만 판매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48.9%로 점유율이 소폭 하락한다. 반면 하이트진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점유율이 25.3%이지만 판매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8%까지 점유율이 높아진다. 양사가 기준을 놓고 대립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비맥주가 닐슨코리아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매출액 기준 맥주 소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히자 하이트진로 역시 맥주 소매 시장 판매량 기준 점유율이 30%를 넘어섰다며 맞섰다.

오비맥주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체 맥주 소매시장 3조3100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1조6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대대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지난해 오비맥주가 주력 브랜드 ‘카스’의 가격을 인상했다 다시 인하했기 때문에 매출 기준 점유율이 실제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맥주시장 점유율 (2019년 기준)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동일 가격 제품이 라면 매출로 비교할 수 있겠지만 판매가격을 올린 후 매출액 기준 점유율을 제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면 비싼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판매량이 다소 낮더라도 점유율은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5위권 순위에서 하이트진로의 설명은 설득력을 얻는다. ‘클라우드’와 ‘피츠’를 판매하는 롯데칠성음료의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5위권이지만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면 3위로 올라선다. 판매량은 클라우드와 피츠가 많지만 하이네켄과 청파오의 단가가 높아 매출액 기준으로는 하이네켄과 청파오가 3·4위에 이름을 올리 때문이다.

그러나 오비맥주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을 문제삼기도 쉽지 않다. 농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맥주 시장 규모를 매출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또 시장 규모에 기반한 점유율 산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이트진로가 주장하는 판매량 기준 브랜드별 점유율은 ‘카스후레쉬’ (오비맥주)가 36%로 압도적인 가운데 하이트진로의 발포주인 ‘필라이트’가 11.6%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하이트 7.3%, 테라 7.2%, 청파오 3.2%, 하이네켄 3%, 클라우드 2.1%,

피츠 1.5%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량 기준 오비맥주의 지난해 판매량은 4억1925만ℓ다. 이는 전년 판매량 대비 6.9% 줄어든 수치다.

테라는 지난해 첫 출시해 7.2%라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아직까지 하이트진로의 맥주 브랜드 중 판매량은 3위 수준이다. 하이트진로의 점유율 증가 효과 브랜드로 ‘테라’ 대신 ‘필라이트’가 꼽히는 이유다. 필라이트는 발포주로 기타주류이지만 닐슨코리아에서는 맥주에 포함시켜 시장점유율을 산정한다. 오비맥주가 테라의 반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주류업계에서는 이번 양사의 점유율 공방 배경으로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오비맥주와의 격차를 좁힌 것을 꼽는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테라, 필라이트 등 신제품이 잇달아 히트상품 반열에 오르면서 하이트진로가 매 분기 오비맥주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며 “오비 입장에서는 카스가 여전히 견제하던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만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필라이트의 선전을 드러내고 싶었던 만큼 판매량을 기준으로 맞서며 우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1600원’ 국내 최저가 운임 ‘CU끼리’ 택배 서비스 진출

자재 물류 활용해 매장 접수·픽업… GS25 이어 두 번째

편의점 업계가 택배 시장을 넘보고 있다. 전국 곳곳에 싹틔줄처럼 뻗어 있는 점포와 물류 차량을 통해 직접 택배에 나선 것. GS25가 ‘반값택배’로 직접 택배 서비스에 먼저 뛰어든 데 이어 CU(씨유) 역시 1600원짜리 최저가 ‘CU끼리’로 택배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씨유)가 자재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1000~2000원대 최저가로 점포 간 택배를 주고받을 수 있는 ‘CU끼리’ 택배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CU끼리 택배 서비스는 기존 편의점 택배와 픽업 서비스가 결합한 형태로 CU에서 접수한 택배를 배송 지정된 CU에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용 방법은 일반 택배 접수와 동일하다. 점포에 비치된 포스트박스(택배 장비)에서 ‘CU끼리’ 택배 접수를 선택하고 물품 내역과 배송 점포(지도 검색 기능)를 입력하면 된다. 현장 접수와 CU Post 홈페이지 사전 예약 모두 가능하다. 다만 이 서비스는 5kg 미만 소형 택배만 취급한다. 운임은 1kg 이하 1600원으로 국내 최저가이며, 1kg 초과 5kg 이하는 2400원이다.

CU의 물류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공휴일도 택배 수거가 가능하며 배송 소요 기간은 동일 권역 내 최단 2일에서 평균 3~4일이 걸린다. CU POST 홈페이지에서 접수 운송장 번호만 있으면 배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지정 점포에 택배가 도착하면 수령인 번호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기 때문에 본인 확인 후 택배를 찾아가 수거할 수 있다.

이에 앞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지난해 3월 기존 편의점 물류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반값택배’를 내놨다. 이 서비스는 중고 거래에 특히 많이 이용되면서 월 이용 건수가 11개월 만에 5배 이상 늘어났다. 이 서비스는 발송 접수부터 수령까지 약 3일이 걸려 1~2일 만에 배송되는 일반 택배에 비해 다소 길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다. ‘반



값택배’는 일반택배(2600~6000원)보다 최대 65% 저렴하다. 물품의 무게가 500g 미만의 경우 1600원이 적용되고, 500g~1kg 사이의 물품은 1800원, 1~10kg까지는 2100원이다. 500g에서 1kg 사이일 경우 CU보다 200원 비싸지만, GS25는 3월 한 달간 기본운임 대비 각 용량별 300원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CU끼리’ 출시에 맞불을 냈다.

편의점 업체들이 택배 서비스에 속속 나서는 이유는 택배 위탁서비스의 높은 인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편의점의 약 95%가량이 택배 위탁서비스를 도입한 만큼 직접 택배 사업의 안착에 대한 확신이 섰다. 특히 출점 절벽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택배 시장은 기존 물류센터와 점포, 배송망을 이용해 손쉽게 진출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편의점 업체가 저가 택배 사업에 뛰어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S25와 CU는 점포 수가 많은 데다 자사 물류센터를 운영해 택배 시스템 구축이 쉽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자체 물류가 아닌 아웃소싱 형태이기 때문이다.

김지희 BGF리테일 서비스플랫폼팀 MD는 “합리적인 가격을 강조한 CU끼리 택배와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편의성을 극대화한 홈택배 서비스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편의점 택배 이용 고객에게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사랑하는 이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10일 서울시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식품관에서 모델들이 면역을 높이는 이색 건강 선물을 소개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홍삼 스틱·프로폴리스·올리브 잎 추출물이 함유된 사랑과 소포장 마누카꿀을 선보인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보험사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에 ‘긴장한 홈쇼핑’

방역·열체크 강화… 재택근무도

서울 신도림 보험사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업종 특성상 콜센터 인력이 많은 홈쇼핑 및 온라인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에이스보험 위탁 콜센터에서 이날 오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4명 발생해 센터 내 업무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이곳에서는 에이스보험의 위탁을 받은 메타넷오픈마켓이라는 아웃소싱 업체가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홈쇼핑 업계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GS홈쇼핑은 부천 송내센터와 부산센터로 이원해 운영 중이다. 이번 주부터 일부 인원은 재택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총 3곳의 콜센터에 6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롯데홈쇼핑은 일주일에 3회 전문 방역을 실시하고, 4회 자체 방역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루 3회 이상 열체크를 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CJ ENM 오쇼핑은 이미 주거환경 등 개인 사정이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 재택을 희망하는 모든 직원들은 현재 재택근무 중이다. 사무실 인력은 센터 상담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루 2회 발열 체크와 일 3회

사무실을 소독한다.

현대홈쇼핑은 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2일부터는 근무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부 인원에게 재택근무도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콜센터에 출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NS홈쇼핑은 콜센터의 경우 헤드셋을 하루 한 개씩 지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봄비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 칸씩 떨어져 앉게 했다”면서 “내근 인원 총 300명 중 70명은 이번 주부터 재택 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제주신라호텔, 허니문 패키지 출시

3~4월 허니문 투숙 문의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로 가는 신혼여행 대신 제주도 신혼여행이 뜨고 있다. 실제로 제주 신라호텔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전체 객실 예약 문의 중 신혼여행 관련 투숙 문의가 20%에 달할 만큼 늘었다.

이에 제주신라호텔은 신혼여행객을 위한 ‘스위트 허니문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스위트 허니문’ 패키지는 2박 이상 투숙객에게 허니문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스위트 쉼비포’를 제공한다. 기존에 호텔에서 스냅촬영을 하고 사진첩과



앨범을 만들어주는 ‘쉼비포’에 ‘뉴트’ 트렌드를 접목해 특별한 기억을 사진에 담 아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

박미선 기자 only@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어떤 은행이라도
KB스타뱅킹으로
한번에오픈뱅킹도
KB스타뱅킹KB스타뱅킹으로 간편하게
은행이 달라도 출금, 이체, 상품가입까지 한 번에KB스타뱅킹으로 한눈에
은행이 달라도 잔액, 거래내역까지 한눈에KB스타뱅킹으로 수수료 없이
다른 은행 간 이체 수수료 무료

*오픈뱅킹은 KB국민은행을 포함하여 총 18개 은행이 참여하는 편리한 금융서비스이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 한도는 오픈뱅킹 전 기관 합산 1일 1천만원입니다.

*오픈뱅킹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점 직원, 스마트 상담부(1588-9999)로 문의 또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0080호(2020.01.22), 광고물 유효기한 2020.12.31까지

KB 국민은행

〈기존에 머물지 않고 경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경영 철학〉

“‘에지워크’로 혁신… EMP·인프라 펀드 출시 검토”

펀드를 말한다 ⑨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

라임운용 사태에 메자닌 시장 위축… 중위험·중수익 추구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적용 ‘BNK글로벌AI펀드’로 차별화

“같은 생각으로 뭉치는 순간 말할 수밖에 없다. 다른 생각과 다양한 환경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

여의도 파이낸스타워에 위치한 BNK 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이윤학 대표를 만났다. 그는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볼 때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며 “평균적인 시각으로 평균의 성공만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까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였던 BNK자산운용은 현재 자산 760억 원

규모의 종합자산운용사로 탈바꿈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올해는 성과급도 나올 예정이다. 배경에는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 출퇴근이 자유롭고 결재 절차도 단순하다. 학연과 지연, 혈연도 따지지 않는다. 대표가 펀드매니저의 운용에 일절 관여하지도 않는다.

이는 ‘에지워크(Edge work)’라는 회사의 경영 철학으로 이어진다. 이대표는 “기존에 머물지 않고 경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뜻으로,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대표하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파이낸스타워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는 상품이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BNK글로벌AI펀드’다.

그는 “50%는 채권 ETF(상장지수펀드)를, 나머지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선정한 에퀴티, FX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담았다”며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이고 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모펀드”라고 설명했다.

향후 펀드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리츠와 실물자산의 강세를 전망했다. 이대표는 “펀드는 국내에서 글로벌로, 전통에서 대체로, 액티브에서 패시브로 이동하고 있다”며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중위험, 중수익을 노리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짚었다. 또 “지금처럼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추구하는 집단이 많지 않다”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메자닌 시장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부동산 리츠나 실물 등

이 안정적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모펀드 시장 위축은 성장통의 일부”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EMP(ETF Managed Portfolio) 펀드 신규 출시를 기약하고 있다. 그는 “NH투자증권 글로벌자산배분팀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며 “하 이타깃이 아닌 4~5% 수준의 안정감 있는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글로벌 EMP펀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획상으로 3월 말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프라 투자 관련 펀드도 검토 중이다. 이대표는 “BNK금융그룹이 부산 및 경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사회공헌 차원에서 부산의 항만 물류 등 인프라 투자를 고려 중”이라며 “불완전판매 요소가 없는 대체투자 등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美 주식이 이럴 수가”… 직구族 개미 ‘울상’

코로나19에 유가 폭락 겹쳐

美 증시 9일 하루 새 7% 떨어져 가장 많이 산 테슬라株 21% ↓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해외주식 직구족들의 속이 타고 있다.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던 미국 주식을 뒤흔게 매수했다가 시장 급반전에 손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6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잔액은 93억648만 달러(약 11조1817억 원)로 지난해 말보다 10.6% 증가했다.

미국 증시는 지난달 중순까지 세계 주요 증시가 코로나19 여파에 출렁이는 와중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미국 IT 대기업

국내 투자자 미국 주식 결제 현황
(단위 : 100만 달러, 3월은 6일 기준)



의 호실적, 양호한 경제지표 등에 힘입어 상승세가 지속됐다. 다우지수는 지난달 12일 29568.5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어 19일에는 나스닥지수가 9939.37포인트로, S&P500지수가 3393.52포인트로 새 기록을 썼다. 미 증시가 불을 내뿜자 국내 투자자도 열띤 매수

세를 보였다. 지난달 미국 주식 매수액은 33억5821만 달러로 전달(23억5515만 달러)보다 42.59% 증가했다. 사상 최대치였던 1월 기록을 바로 추월한 수치다.

그러나 미 증시는 코로나19가 중국 외 지역에도 급속도로 퍼지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6일 석유수출기구(OPEC)의 원유 감산 협회가 무산되면서 국제유가가 폭락하자 위기감이 증폭됐다. 이에 미 증시는 9일 하루 만에 7%대 낙폭을 보였다.

최근 한 달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은 테슬라다. 이 기간 국내 투자자는 테슬라 주식을 3억5747만 달러어치 사들였지만 주가는 21.17% 하락했다. 이어 매수 규모가 큰 마이크로소프트(2억9277만 달러)는 하락률을 보였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코로나 공포에… 국내외 주식형 ETF 수익률 ‘뚝’

연초 이후 평균 -12%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에 함께 주저앉았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증시 낙폭이 큰 곳은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는 반면, 중국 ETF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344개(레버리지 포함)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전일 기준 -12.04%를 기록했다. ETF 전 종목 평균 수익률(-7.64%) 대비 낮은 수준이다.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의 채권형 ETF 45개 종목(레버리지 포함)이 같은 기간 4.26%에 달하는 수익을 내며 선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ETF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국내 주식형 ETF 246개 종목이 연초 이후 -12.16%를 기록했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 69개 종목의 같은 기간 평균 수익률은 -11.52%로 집계됐다.

해외 ETF 중에서는 연초 이후 증시 지수 낙폭이 컸던 유럽과 일본 ETF 수익률이 저조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지수를 추종하는 세 종목은 평균 -22.29%의 수익을 냈다. 일본에 투자하는 ETF 7개 종목도 평균 -19.29%로 국내 주식형보다 수익률이 낮았다. 아울러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한 ETF 23개 종목도 평균 수익률이 -11.06%로 부진했다.

반면 중국 시장을 기초로 하는 ETF는 중국 증시가 낙폭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나은 수익을 냈다. 이다원 기자 leedw@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

기업용 ERP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증권신고서 정정만 9번째... 497억 유증 이번엔 성사될까

공시돌보기

좋은사람들

경영권 분쟁에 최대주주 2번 교체 수익성 악화·유동성 감소도 발목

‘8전 9기’. 생산기지 이전을 위해 자금 조달에 나선 코스닥 상장사 좋은사람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1년여 만에 성사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좋은사람들은 497억 원 규모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 발행 예정가는 2485원이며 18일 발행가액이 확정된다. 조달 자금 중 313억여 원은 시설자금에, 183억여 원은 운영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좋은사람들이 거액의 자금조달에 나선 것은 작년 8월이다. 최초 계획했던 증자 규모는 65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엄격해진 증권신고서 심사가 매번 발목을 잡았다.

좋은사람들의 경우 잦은 경영권 분쟁이 력이 문제가 됐다. 좋은사람들은 최근 수년간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최대주주가 2번 바뀌었다. 2018년 4월 엄덕희 외 4인에

서 콘텐츠제이케이로, 같은 해 10월 콘텐츠제이케이에서 제이에이치W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 제이에이치W투자조합은 콘텐츠제이케이와의 경영권 분쟁 중 백기사(우호 주주) 형태로 15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면서 좋은사람들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또 증자 비율이 자본금의 약 67%에 이르는 대규모인 탓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여부에 따른 지분 하락과 경영권 혼란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사실에 대한 보충을 금감원으로부터 요구 받았다. 이 밖에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대응 능력 감소에 따른 위험,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의 적법성 등에 대한 정정 등 회사가 최초 제출한 증권신고서 이후 다시 고쳐 낸 증권신고서만 9건에 달한다.

증자 일정이 7개월 넘게 연기되면서 생산기지 이전과 자금조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단 주가 하락에 따른 발행가액 산정으로 자금조달 규모가 크게 줄어들 공산이 크고, 생산기지 마련 시기도 늦춰졌다. 좋은사람들은 지난해 3분기까지 연결기준 958억 원의 매출에 39억 원의 적자를 냈다. 최근 4년 중 2018년을 제외하고 적자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코로나19’ 확산 영향 증시 폭락 SK이노·현대차 등 상장사 49곳 자사주 취득... 전년비 2배 넘어 “주가 부양·책임경영 긍정적 효과”

코로나 폭락장 속에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주가 방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사주 매입 열기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9일까지 자사주 취득 결정을 공시한 상장사는 49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곳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 수치다.

전날에는 코웰패션이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96억5000만 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6일에는 LF가 주주 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을 위해 100억 6200만 원 규모 자기주식취득을 결정했다. KTB투자증권 역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30억 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자사주 취득 공시한 주요 기업

(단위 : 원)

기업명	취득예정 규모	취득 예정 기간
LF	100억 6200만	3월 9일~6월 8일
SK네트웍스	999억 9490만	3월 5일~6월 4일
락앤락	200억	2월 13일~8월 13일
현대홀딩스	100억	2월 26일~6월 25일
현대차	2620억	작년 12월 5일~3월 29일
아이에스동서	100억	2월 28일~8월 25일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아울러 최근 일 년 새 주가가 47% 폭락한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부터 자사주 462만8000주를 매입하고 있다. 금액으로 치면 5785억 원 규모다.

최근 신차 발표에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현대차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석 달간 총 213만6681주, 2620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현대모비스도 지난달 3일 기준에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자사주 186만9535주 중 25만2천 주, 총액 530억 원 상당을 소각했다.

락앤락도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알렸고, 증권건설사인 아이에스동서와 한라홀딩스, 방송사를 소유한 SBS미디어

홀딩스 등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코스닥에서는 메디톡스, 탑엔지니어링, 엠플러스, 경동제약, 엔텔스, 삼영이앤씨 등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이처럼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이 활성화된 것은 1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폭락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월 이후 코스피 지수는 7.75%나 빠졌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 주가 하락은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가 아닌 외부 요인 때문인 만큼 이 같은 자사주 취득은 주가 부양효과와 함께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표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상장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에 대비해 주주 가치 제고, 책임경영 의지 강화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면서 “자사주 매입은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주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부채비율 줄고 총자본 늘어 재무환경 ‘맑음’

상장사 재무 분석

코스모신소재

코스모신소재가 지난해 실적과 재무환경에서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실적은 부진했지만 재무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모신소재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4.3% 감소한 2439억 원이다.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36억 원, 59억 원으로 모두 적자전환했다.

앞서 2016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한 이후 3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1분기 코발트 가격 하락과 스마트폰 수요 감소에 따른 리튬코발트산화물(LCO)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인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2분기부터는 영업적자가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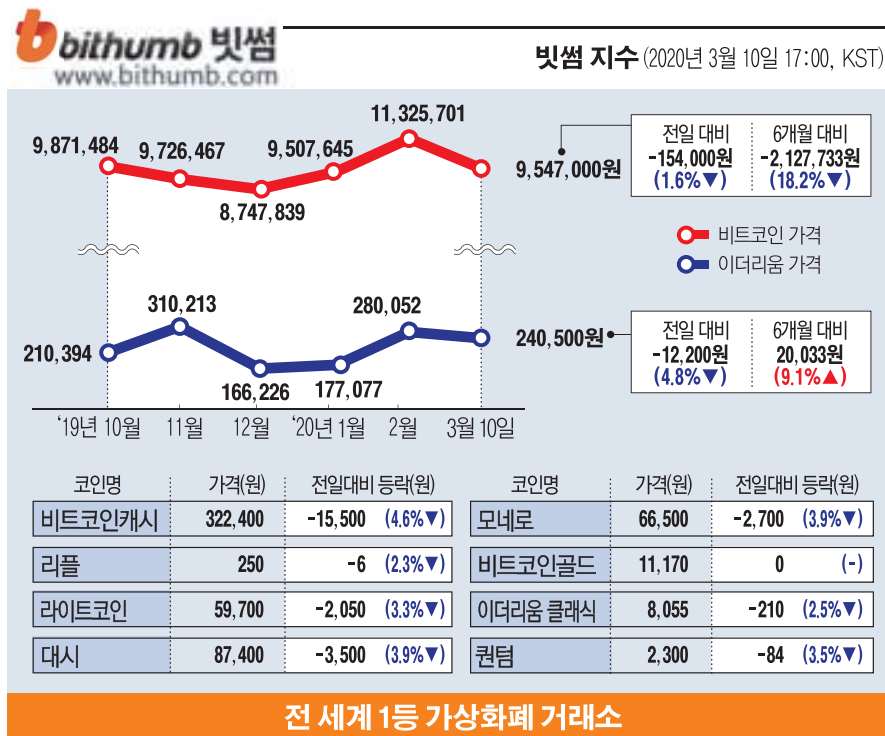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재무지표는 개선됐다. 우선 부채비율이 168.84%에서 78.23%로 급감했다. 2000년대 들어가

장 좋은 성적이다. 코스모신소재는 지난해 8월 83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4분기 자금을 조달했다. 이로 인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대폭 늘게 됐다.

미처리 결손금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 코스모신소재는 그동안 전기이월 결손금이 꾸준히 다음 연도 회계에 반영이 되면서 자본을 갉아먹었다. 그러나 2016년 흑자전환하면서 3년간 결손금은 421억 원에서 271억 원까지 감소했고, 지난해엔 46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반영된 결손금은 전기 이월분이 아닌 당기순손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더 이상 이월분은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도 각각 48.01%, 20.07% 감소하며 유동부채에서 눈에 띄는 감소가 있었다. 덕분에 회사의 부채비율도 급감하게 됐다.

이와 함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로 유동자산 역시 늘어나게 되면서 유동비율은 131.07%로 집계됐다. 코스모신소재가 세 자릿수의 유동비율을 기록한 건 2005년 이후 처음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은용결제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6%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증권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예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발생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9-62호(2019.02.28)

〈산본 우륵아파트 전용 59㎡형〉

안양·의왕 누르자 치솟은 군포 경매… 낙찰가율 132%

유찰됐던 군포 우륵아파트 감정가보다 1억 비싸게 팔려
지난달 군포 낙찰가율 110% 기록… 13년 만에 최고치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 1계에서 경매 진행된 경기 군포시 산본동 우륵아파트(전용면적 59㎡)가 3억 8899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2억9500만 원)보다 무려 1억 원 높은 값에 팔린 것이다. 응찰자는 무려 47명이었다. 지난해 12월 이 단지 동일 면적의 경매 물건은 입찰자가 없어 한 차례 유찰됐다가 두 번째 입찰에서야 주인을 만났다. 낙찰가도 감정가보다 낮았다. 2개월 만에 상황이 반전한 셈이다.

이날 경매에 부처진 산본동 '래미안 하이얼스' (전용 85㎡)와 부곡동 삼성마을 아파트(전용 60㎡)도 감정가보다 높게 팔렸다. 이들 단지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각각 116%, 108%였다.

군포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은 지난달 발표된 2·2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교통 및 리모델링 호재를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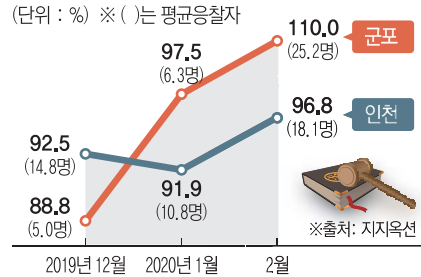
고 있는 이 지역에서 2·20 대책이 경매 열기 확산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군포시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10%를 기록했다. 2007년 2월(112.6%) 이후 최고치다. 이 기간 평균 응찰자 수는 경매 물건당 25.2명으로 경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제 군포시 산본동 우륵아파트 전용 59㎡형은 지난달 말 132%의 낙찰가율로 새 주인에게 돌아갔다.

올해로 준공 26년 차인 우륵아파트는 지난 5년 동안 나온 5건(전용 59㎡)의 경매 물건 중 3건이 유찰될 정도로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없었다. 지난해 12월 경매로 나왔던 물건도 한 번 유찰 뒤 낙찰가율 84%에 팔렸다. 우륵아파트 낙찰가율이 이번엔 130%대를 찍은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군포·인천 아파트 낙찰가율 추이



지지옥션 측 설명이다.

인근 래미안 하이얼스(전용 85㎡)도 감정가(7억4500만 원)보다 1억1700만 원 비싼 8억6200만 원에 낙찰됐다. 전용 60㎡짜리 부곡동 삼성마을 아파트도 감정가에 3000만 원가량 웃돈이 얹어진 3억 6850만 원에 팔렸다.

군포 아파트 경매시장은 이 일대 매매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주 군포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1.27%로 전주(0.67%)의 두 배 수준이었다. 이 기간 경기도의 시·군·구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중 가장 높았다.

교통 호재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라는 호재가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게 전문가

들의 분석이다. 군포지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금정역이 들어선다. 산본역 일대에 위치한 우륵주공7단지, 세종주공6단지(1827가구) 등은 리모델링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어 최근 이 일대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2·20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에 불을 지폈다. 지난달 정부가 수원시(장안·권선·영통구)와 안양시(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비규제 지역 곳곳에서 집값 '풍선효과'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오르는 현상)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경기 부천·안산·오산시 등지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일제히 커진 것이다.

안양·의왕시에 붙어있는 군포시도 2·20대책의 풍선효과 '수혜지' 중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군포시 산본동 한 공인중개사는 "이 지역 집값 상승세와 아파트 투자 열기가 경매시장에 그대로 번진 셈"이라고 말했다.

인천 아파트 경매시장도 들끓고 있다. 지난달 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6.8%로 2016년 11월(96.9%) 이후 최

고치를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경매 물건당 18.1명으로 최근 1년 중 가장 많았다. 2·20 대책 이후인 지난달 25일에 경매에 부처진 남동구 구월동 롯데캐슬골드아파트(전용 84㎡)엔 무려 88명이 입찰서를 써냈다.

2월 법원 경매 응찰자 수 기준으로 전국 최대였다. 낙찰가는 4억3549만 원으로 감정가(3억6500만 원)의 119%에 달했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유독 부풀어 오른 지역을 다시 누르다 보니 비규제지역으로 내집 마련 수요 및 투자 수요가 옮겨붙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전국 경매법원이 휴정에 들어가 지역별 아파트 경매 낙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경매시장에서도 풍선효과가 이미 확산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목동 집값 고공행진

신시가지 6단지 이어 9단지도 안전진단 통과

"안전진단 통과 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나홀로 아파트까지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건이 나오면 연락 달라는 대기자들이 많지만 매물이 없어요." (서울 양천구 목동 P공인 관계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있지만 서울 목동 주택시장은 매일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말 목동 6단지가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처음으로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서던 데 이어 9단지까지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초 11억8000만 원에 거래됐던 목동신시가지 7단지 전용면적 53.88㎡형은 8월 12억2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목동 14단지 전용 74.19㎡형도 얼마 전 12억8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목동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신시가지 단지들의 잇단 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곳 집값도 호가 위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벌써 11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단지의 노후도·구조적 안전성 등을 따져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판가름하는 절차다. 지난해 말에는 6단지가 D등급을 받으면서 조건부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은데 이어 9월 9단지도 조건부로 정밀안전진단



을 통과했다. 이들 단지 외에도 5·11단지 등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에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집을 사려는 매수 대기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매물이 많지 않아 거래는 뜸한 편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목동 아파트 매매건수는 지난해 11월 216건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월 60건, 2월 47건으로 거래량이 50건 안팎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값까지 오르고 있다. 목동 롯데캐슬 전용 84.98㎡형은 지난달 26일 9억 원에 팔려 한 달 새 거래가가 5000만 원 올랐다.

정비업체에서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할 경우 사업성이 좋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녹양역' 조합에 16억 환급

현대건설은 2018년 11월 입주한 경기 의정부시 가농동 힐스테이트 녹양역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사업비 16억 원을 환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도급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원 모집 이후 일정 계획대로 입주를 완료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5~10%다. 입주 시에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비, 건축비 등 비용 증가로 모집 당시 책정된 사업비 이상의 추가 부담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힐스테이트 녹양역' 지역주택조합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업 시작과 동시에 토지 확보 및 인허가를 확정하고, 현대건설과 시공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탁월한 사업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2015년 6월 조합원 모집 개시 1년 만에 착공하고, 2018년 11월 입주를 마치는 등 사업을 빠르게 진행했다. 또한 조합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우리집엔 어떤 스타일의 마루가 어울릴까요?

마루는 우드패턴 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SB마루를 만나보세요.
우드패턴은 물론 대리석 패턴, 헤링본 사공도 가능하며,
에스비 강, 에스비 엠보까지 다양한 마루로 인테리어 스타일을 빛나게 합니다.

실용성에 스타일까지 갖춘 강마루 - 한솔 SB 마루



한솔 sb마루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 마루
대리석 / 우드 / 헤링본 / 에스비 강 / 에스비 엠보



습기에 강한 실용마루
장시간 습기에 노출시에도 치수 변화 및 팽창에 안정적



친환경 소재의 건강한 마루
아토피인증, 항균방이 인증 획득

※제품별 친환경 SB 전용 접착제 사용(황토, 프리미엄)

박원순 “코로나 타격 생활비 주자”

“중위소득 이하 약 800만 가구
2·3월에 30만원씩 지급하자”
콜센터 감염 지자체 공동 대처



대한 틈새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이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10일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매출 급감, 실직, 무급 휴직 등을 겪었으나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제도로 2~3월 두 달간 생활비 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이다.

박 시장은 이날 유튜브로 생중계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은 정부 추경(안)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가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제안이 시행되면 정부 추경을 보완해 지급과 같은 재난에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 기준 이하 전체 약 1000만 가구(989만7000가구) 중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 가구(796만 가구)가 해당된다.

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가구 소득이 474만9000원 이하일 때 소득 확인을 거쳐 신청 즉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60만 원의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앞서 8일 신도림동의 콜센터에 근무하는 노원구 56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료 직원과 교육생, 가족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확진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집단감염 사례로 매우 심각하고 위중하게 이상향을 인식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콜센터처럼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서 밀접해 근무하는 환경을 가진 모든 업체를 파악해 긴급 점검을 하고 사전방역을 포함한 감염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지자체별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행정구역상 한계를 넘어 협력한다면 정확한 진단과 대책,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경기·인천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고추야 잘 자라라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린 10일 오후 전북 임실군 지사면 한 고추농가에서 농민들이 정성스럽게 고추 모종을 옮겨 심고 있다. 연합뉴스

돈만 받고 연락 독... 마스크 사기 급증

제조업체 사칭 주의해야

대금을 편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9일 기준) 198건 중 사기 사건은 93건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중 23명을 구속한 상태다.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판매 빙자 사기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에 마스크 판매 광고를 올린 뒤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돈만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사기 유형이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뿐만 아니라 맘카페, 동호회 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제조업체를 사칭한 판매 빙자 사기 사건도 4건 적발됐다.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제조업체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유통업자, 소매업자, 대량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를 속여

제조업체의 대표 전화번호를 사기범 인터넷 전화로 몰래 착신 전환한 후 구매하려는 소매업자 등을 속여 마스크 대금을 받았다.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이메일 주소를 사기범의 이메일 주소로 변경해 마스크 대금을 속여 뺏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 사칭의 경우 피해금액이 최고 12억 원에 달했다.

제품의 품질을 속여 판매한 사건(5건)도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KF94, KF80 등 정부인증을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인증마크를 위조하고 허위 광고해 마스크를 판매한 사례다.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터넷 직거래 시 더 신중히 처리하고, 제조업체와의 고액거래 시 공장을 방문하는 등 판매자 검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 홈페이지,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포털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참고해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km 제한 규정 합헌”

“고속 주행 사고때 위험성 더 커
생명·교통 안전 확보 위한 것”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 제한을 규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2항 32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권리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스마

트 모빌리티 제품은 전동킥보드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면서도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없고, 전기자전거 최고속도 제한은 시속 30km라는 점 등을 근거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헌재는 최고속도 제한 규정의 입법목적,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모두 충족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도 줄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전동킥보드에 의한 교통사고 현황은 충돌 사고보다 도로 파손이나 조각미수로 인해 운행자가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했다”며 “고속으로 주행할수록 넘어지거나 충돌했을 경우 사고 결과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의미와 목적 면에서 이동 수단의 특성상 부과되는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의무가 동일하다는 의미이지, 제품 제조·수입상의 안전기준 수립 문제에서도 갈게 취급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평등권 침해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박영사
신간도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웬스엔케어 대표이사
전) 김정문알로에 대표

www.pybook.co.kr

박영사

태양과 바람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삶은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탄소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출근하는
에너지 효율의 시대

한국전력은 에너지 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삼성폰과 나의 공통점은 차별화된 생각과 시선”

‘갤럭시 Z 플립’ 협업한 패션 디자이너 톰 브라운

옛 폴더폰처럼 위아래로 접는...고전과 혁신의 조화 맞닿아
톰브라운 에디션 출시 2시간 만에 완판, 추가 판매 검토 중

삼성전자가 패션 브랜드 톰브라운과 협업해 선보인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은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을 거뒀다. 3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1일 출시되자마자 약 2시간 만에 완판됐다.

삼성전자와 톰브라운은 특별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협업을 이어갔다. 패션회사인 톰브라운이 스마트폰 디자인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톰브라운이 삼성과 손을 잡은 이유는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션 디자이너 톰브라운<사진>은 삼성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톰브라운은 ‘차별화된 생각과 시선’에 큰 가치를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쉽게 협업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

에 대해서는 “패션과 기술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며 “사람들이 기기를 사용할 때 기술과 디자인을 섬세하게 녹여낸 특별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제품에 담긴 디자인 철학을 ‘고전과 혁신의 조화’로 정의했다. 그는 “나의 의상 컬렉션들은 고전적인 것들을 재해석해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전달하는데 가치를 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날 폴더폰처럼) 위아래로 접는 갤럭시 Z 플립은 평소 내 디자인 방식과 맞아 떨어진다”며 “클래식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그 위에 혁신을 더하는 것”이 이번 디자인 과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은 톰브라운의 시그니처 회색 색상에 매트한 느낌



의 외관 디자인을 갖췄다. 스마트폰 중앙에는 톰브라운 로고와 고유의 빨간색, 흰색, 파란색 시그니처 패턴이 입체적으로 적용돼 있다. 전용 케이스도 동일한 삼색 패턴으로 장식돼 있다.

톰브라운 에디션은 서랍장 타입의 패키지에 담겨 있으며, 갤럭시 워치 액티브2와 갤럭시 버즈 플러스도 제공된다. 두 제품



삼성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또한 톰브라운의 디자인이 적용돼 있다.

브라운은 “톰브라운의 디자인 가치는 패키지에도 드러난다. 상자를 여는 순간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과 서류 가방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며 “내가 추구하는 세계와 그 세계를 담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완판된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은 4일부터 1차 구매자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톰브라운 에디션 추가 판매를 검토 중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현대자산운용 차문현·정욱 대표
장부연 대표와 3인 각자대표 체제



현대자산운용은 주주총회를 열어 차문현<왼쪽 사진> 전 알파자산운용 대표와 정욱<오른쪽> 전 한국자산신탁 부사장을 신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장부연 단독 대표 체제였던 현대자산운용은 3명의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차문현 신임 대표는 1972년 부산은행에 입행해 동화은행과 제일투자신탁(하이투자증권 전신), 우리투자증권(NH투자증권 전신)을 거쳐 유리자산운용, 펀드온라인코리아(한국포스증권 전신),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알파자산운용 등에서 대표를 역임했다. 정욱 신임 대표는 1989년 교보생명보험에 입사해 국제신탁(우리자산신탁 전신), 한국자산신탁 등을 거쳐 2014년부터 한국자산신탁 부사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정희 기자 ljh@

교직원공제회 회원사업이사 이진석
이사장 공석으로 직무대행도 겸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진석 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이 회원사업이사에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2020년 3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다.

이진석 이사는 1962년생으로 전남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나고야대 비교교육 석사, 숭실대 평생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행정고시 제33회로 공직에 입문, 충북대 사무국장, 경기도교육청 및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 이사는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공석으로 공제회 정관 및 직제규정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을 겸하게 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장 취임

전영현 삼성SDI 사장
이한국전지산업협회 제6대 회장에 취임했다.

10일 삼성SDI에 따르면 전지산업협회는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

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전 사장을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023년까지 3년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SK하이닉스 반도체 전문가가 풀어낸 ‘패키지와 테스트’

전문지식·경험 공유 서적 출간...수익금 상생협력에 투자

SK하이닉스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일환으로 반도체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책을 발간했다. 책 판매 수익금 전액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사용된다.

SK하이닉스는 협력사 대상 지식공유 플랫폼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축적된 반도체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패키지와 테스트(원제 : 반도체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패키지와 테스트)’ 책을 펴냈다고 10일 밝혔다. 반도체 생산 공정 중 ‘패키지’는 반도체를 외부 충격으

로부터 보호하거나 복합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포장하는 공정이며 ‘테스트’는 반도체 칩을 전기적으로 검사해 불량률 선별하는 단계다.

이 책은 패키지와 테스트 공정의 기본 이론부터 반도체 칩 패키지가 생산되기까지의 전반적인 지식을 담았다. 특히, 각 장의 마무리에 주요 내용을 만화로 요약해 반도체 전문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흥미도 더했다.

SK하이닉스는 이 책이 반도체 기술 역

량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의 역량 향상과 더불어 반도체 업계에 입문하려는 학생들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협력사 구성원들을 위한 반도체 콘텐츠 제작 등 협력사와의 지식공유 확장과 상생협력 강화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 책은 SK하이닉스에서 20여 년간 패키지 개발과 양산에 참여해 온 현장 전문가인 서민석 SK하이닉스 WLP공정관리팀장이 대표 집필해 완성도를 높였다.

권태성 기자 tskwon@



SK하이닉스가 출간한 ‘반도체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패키지와 테스트’의 저자인 서민석(왼쪽) 팀장과 기획자인 이상익 TL.



류현진·김광현, 시범경기서 나란히 승리투수

류, 4와 ⅓이닝 3안타 4삼진 무실점 ‘뛰어난 위기관리’
김, 4경기 연속 무실점... 평균자책점 ‘0’ 행진 이어가

‘메이저리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왼쪽 사진)과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오른쪽)이 미국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나란히 선발 등판해 승리투수가 됐다. 모두 무실점 호투로 인상적인 투구 내용을 선보였다.

류현진은 1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

다주 더니든 TD 볼파크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시범경기에 선발로 나서 4와 3분의 1이닝을 3안타 4삼진 무실점 호투했다. 류현진은 이날 경기에서 완투 조절과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것은 물론, 다양한 변화구를 선보였다. 투구 수는 64개. 류현진의 활약에 토론토는 8-3으로 승리했다.

김광현도 호투를 펼치며 메이저리그에서 순항했다. 같은 날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 해먼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한 김광현은 3이닝 2안타 4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김광현은 자신의 주 무기인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내세우며 상대 타선을 무기



력하게 만들었다. 투구 수 46개를 채우고 2-0으로 앞선 4회 대니얼 폰스 디 리온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세인트루이스는 3-0으로 승리했다. 김광현은 이날 활약으로 시범경기에서 4경기 연속 무실점하며 평균자책점(ERA) 0의 행진을 이어갔다.

홍인석 기자 mystic@

한국에 첫 미국식 토크쇼 선보인 자니윤 별세

한국에 처음으로 미국식 토크쇼를 들여온 코미디언 자니윤(윤종승) 씨가 8일(현지시간) 오전 향년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요양시설인 헌팅턴양로센터에서 자내던 고인은 4일 혈압 저하 등으로 알함브라메디컬센터에 입원했으나,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1936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 서울 중구 신당동의 성동고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언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미국에서 영화배우, 스탠드업 코미디언 등으로 활동했다. 국내에서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 공중파 최초로 미국식 대담형 코미디 토크쇼 ‘자니윤 쇼’를 진행했다. 자니윤 쇼는 이후 ‘주병진 쇼’, ‘서세원 쇼’, ‘이홍렬 쇼’ 등 국내에 코미디언의 이름을 딴 토크쇼들이 잇따라 나오게 계기가 됐다.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고인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임명돼 활동했다. 그러나 2016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뇌출혈로 입원, 다시 미국으로 가 치료와 요양에 전념했다.

시신은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캘리포니아대학 어바인메디컬센터에 기증하기로 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부음

‘제7의 봉인’ 스웨덴 배우 막스 폰 시도우
영화 ‘제7의 봉인’ ‘정복자 펠레’로 유명한 스웨덴 출신 배우 막스 폰 시도우가 8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0세.



1951년 ‘영양 제로’로 데뷔한 폰 시도우는 ‘엑소시스트’, ‘마이너리티 리포트’, ‘스타워즈 : 깨어난 포스’ 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11개 작품에서 스웨덴의 거장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과 함께 일했는데, ‘제7의 봉인’이 대표적이다. 1998년 ‘정복자 펠레’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2011년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Extremely Loud And Incredibly Close)’으로 남우 조연상 후보에 각각 올랐다. 1983년 ‘007 네버 세이 네버 어게인’에서 악당 역을 맡았고,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셔터 아일랜드’에도 출연했다. 노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2014년 ‘심슨 가족’에 목소리 출연했고, 2016년에는 ‘왕좌의 게임’ 드라마 3개 에피소드에 등장했다.

▲박정래 씨 별세, 이광복(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씨 모친상 = 9일, 건양대 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12일 오전 11시, 042-600-6660

▲이중희씨 별세, 박건찬(경북지방경찰청장) 씨 장모상 = 10일, 대전 대청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2일, 042-587-4442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교부세과장 황순조

◆방위사업청 △기술혁신과장 강정훈 △표준기획과장 도윤희 △과학화체계사업팀장 김태숙 △연구개발총괄팀장 김상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협력·ODA센터장 한덕훈

◆아시아경제 △사장 이의철
◆조선일보 △AD영업3팀장 이종태 △디지털광고팀장 김환기

◆TV조선 ◇승진(부국장대우) △보도본부 뉴스에디터 김동욱 △보도본부 경제산업부장 장원준 △뉴미디어본부 전략마케팅팀장 김진우 ◇승진(부장) △보도본부 편집1부장 강상구

중국은 지금



박 승 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

빅데이터 기반의 생산·물류·유통 시스템이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중국인들도 과거 단순 소비주체로서의 역할을 넘어 제품 생산과 판매에도 직접 관여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프로슈머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넥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새로운 중국 진출 프레임을 지금부터 구상해야 한다.

“거의 두 달간 외부 출입을 못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못하는 요리 수준이 엄청 늘었다”는 웃픈 얘기를 하는 중국 친구들이 많아졌다.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비록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중국인들 마음은 쫄쫄 얼어붙어 있다. 지방 도시마다 다르지만 빠른 곳은 이미 지난 2월 25일부터 생산조업 활동이 시작되었고, 그 밖의 다른 도시들은 대부분 3월 초부터 정식 출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 지역사회마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에 대한 방역을 여전히 강화하고 있고, 불안과 공포 심리로 인해 사람들이 최대한 이동하지 않아 중국의 현재 분위기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

특히, 몇 차례에 걸친 확진자 수 통계기준 변화에 따른 통계 의구심과 구멍이 생긴 방역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SNS 공간을 뜨겁게 달구면서 많은 중국인들의 불안과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허 씨 아줌마의 우한 탈출기이다. 허 씨 아줌마는 베이징 출신으로 지난 2월 22일 우한 감옥소를 출소하는 날에 맞춰 베이징에 있는

가족들이 우한에 내려왔고, 허 씨 아줌마는 가족들과 함께 무사히 베이징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 “저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중국 SNS상에서 이런 허 씨 아줌마 얘기를 보고 사람 간 갑론을박이 시작되었다. ‘봉쇄된 우한에서 어떻게 베이징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분명 관시(關係)나 뇌물을 써서 우한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등등 여러 추측이 난무하다. 문제는 이러한 허 씨 아줌마와 같은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중국인들은 걱정하고 있다. 다시 2차 감염 확산이 진행될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중국 사회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한 봉쇄기간에 약 14만 개의 휴대폰 번호가 우한을 빠져나갔다는 논쟁이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및 차이나텔레콤의 우한 지역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 13만8700개가 2월 우한 봉쇄기간에 우한 지역을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약 14만 개의 우한에 등록된 번호 소유자가 봉쇄된 우한에서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논쟁이 모바일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중국은 개인정보 감시에 매우 뛰어난 기술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특히 작년 12월 1일부터는 중국에서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반드시 얼굴 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차이나유니콤의 경우 신규 가입자의 정면 모습은 물론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감박이는 모습까지 촬영해 등록하는 등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는 중국의 빅브라더 사회가 이를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중국의 지역사회는 외부인들의 방문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생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출근은 하지만 심리적 불안감은 아직 강하게 남아 있는 상태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까? 첫째, 위생관념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동안 낙후된 중국 위생시스템과 위생환경에 대한 인식을 10년 정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위생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며,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통적 식사문화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흔히들 “날아다니는 것은 비행기 빼고 다 먹고, 굴러다니는 것은 자동차 빼고 다 먹고, 네 발 달린 것은 책상 빼고 다 먹고, 바다 속에 있는 것은 잠

수함 빼고 다 먹는다”는 우스운 얘기를 하곤 한다. 2003년 사스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중난산(鐘南山) 중국공정원 원사도 “중국인들이여, 이제 야생동물 등 아무거나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낮은 감은 있지만 중국 정부는 야생동물 및 혐오스러운 음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많은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그릇된 식사문화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셋째, 혁신적 소비패턴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번 사태를 통해 그 추세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빅데이터 기반의 생산·물류·유통 시스템이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중국인들도 과거 단순 소비주체로서의 역할을 넘어 제품 생산과 판매에도 직접 관여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중국 사회에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하기 때문에 ‘넥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새로운 중국 진출 프레임을 지금부터 구상해야 한다.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도시와공간 대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경제 활동이 일시적인 현 상황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은 조용하지만 규제 무풍지역으로 일컫는 비조정지역의 일부 아파트값이 최근 상승 폭을 더 키우면서 들쭉이고 있다. 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등 경기 남부지역을 누르자, 이번에는 인천·군포·부천·안산시 등지에서 주간 단위 아파트값 상승률이 1%에 달할 정도로 풍선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강하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코로나 때문에 집을

보여주지 않자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김포 등지에서는 분양권 거래 한 달 새 두 배가 늘고 신고가 경신 단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풍선효과는 실거주자보다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난이 일어날 것을 예상한 투자자가 전셋값이나 매매값 상승을 내다보고 차익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가 부족해질 것을 예상하고 마스크 사재기에 나서는 심리와 주택 사재기 심리에는 거의 비슷한 기제가 작용하는 듯하다. 향후 차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는 행태인 것이다. 인기 공연장이나 프로야구의 압표상이 활동하는 심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마스크·압표 사재기 행태를 막아야 하는 일일까? 또 이런 사재기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우리 정부는 사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등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도 가하고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등 세금 중과나 대출 중단을 통해 소위 투기꾼 박멸을 외치고 있다. 마스크 사재기도 정부 주도로 원가를 통제하면서 싸게 공급하기 위해 약국 등을 통해서 5부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압표상 단속이나 처벌도 마찬가지다.

각종 사재기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을 하면 과연 효과적으로 사재기를 막을 수 있을까? 마스크나 압표 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까? 부동산 투기꾼을 단속한다고 투기꾼이 사라질까?

마스크 대란의 사례에서 보듯 단속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관리할수록 시장 실패는 더 크게 나타난다. 마스크값을 통제하면 의료진이나 환자 등 꼭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재료 수급 등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으로 마스크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가격에 개입하고 투기꾼을 박멸할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의 애로를 풀어주는 쪽으로 정부가 기능을 해야 한다. 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인허가 등 규제를 완화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편이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헤럴드 월슨 명언
“용기는 스스로가 죽을 만큼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자신만이 아는 것이다.”
영국 노동당 당수. 보수당을 누르고 12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그는 5년 8개월간 총리를 지냈다. 그는 ‘과학혁명시대의 사회주의’를 주장, 광산의 국유화·완전고용·사회보장제도 실현 등으로 영국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시도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물러났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16~1995.

☆ 고사성어 / 물부충생(物腐蟲生)
의심하고 난 뒤에 비방을 듣는 것을 이르는 말. ‘생물이 썩은 뒤에 벌레가 생긴다’는 뜻. 소동파(蘇東坡)의 범증론(范增論)이 원전. “생물은 반드시 먼저 썩은 뒤에 벌레가 생기고[物必先腐也而後蠱生之]” 사람도 반드시 먼저 의심을 하게 된 뒤에 남의 모함을 듣는다[人必先疑也而後讒人之]”라고 함으로써 항우(項羽)에게 버림받은 범증을 묘사하였다. 유방(劉邦)은 범증을 비방하는 소문을 퍼뜨려 범증과 항우 사이를 이간하였다. 항우는 헛소문을 믿고 의심하면서 멀리하자 범증은 항우의 곁을 떠나가 죽고 항우도 유방에게 패했다.

☆ 시사상식 / 고용탄력성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나타내며 ‘취업자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산출한다. 경제가 1% 성장했을 때에 고용이 몇 퍼센트(%)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낸 지표이다. 고용탄력성이 높을수록 1% 경제성장에 대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 유머 / 중요심 없는 이유
목사가 미움의 죄악에 대해 설교했다. 설교 중 그가 중요심을 극복한 사람이 있냐고 묻자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정말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고요?”라고 재차 묻자 할머니의 대답. “별거 없어요. 고약한 연놈들이 모두 죽어버렸거든.” 할머니는 백 살이 넘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저수첩

고 대 영 자본시장1부/kodae0@



리스부채, 핑계와 현실 사이

식의 회계 반영은 다소 억울하다는 목소리다.

그럼 리스부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까.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이쯤에서 리스부채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신뢰회계기준을 발표하면서 운용리스를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도로 운용리스를 활용하는 부분을 막고, 실질적인 부채비율을 파악하기 위한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쉽게 말해 회계의 투명성이다. 다만 이 같은 변화를 단순한 회계항목 간의 이동으로만 치부하진 않았다. 리스 활동을 통한 현금흐름과 재무상태 등을 주석에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회계기준 변경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자 받아들여야 할 환경이다. 확실한 사실은, 원래 없었던 부채가 금융당국에 의해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과거 영업비용으로만 처리되던 운용리스가 부채로 인식되면서 일정 부분이 이자비용으로 옮겨간 만큼 향후 당기순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젠 실전이다. 결국 이 모든 건 기업이 안고 가야 할 부채인 것이니 말장난에 그칠 만한 상황은 아닌 듯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총당부채와 우발부채 역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밝혔다. 기업 부채에 대한 점검이 전방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듯 자금과 같은 변화가 단지 운용리스 사용자만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기에, 리스부채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점검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바이러스와 마스크 율화병

코로나바이러스의 공포에 눌린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상품은 마스크다. 마스크를 떠올리면 국민 대다수가 짜증부터 난다. 심지어 율화가 치밀기도 한다.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비롯해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꼭 필요한 상품인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여기에도 정부의 계속되는 뒷북 정책으로는 앞으로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불안감이 깊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를 잘 착용하라고 강조하더니 수급 대란이 일어나자 ‘3일 써도 괜찮다’, ‘면 마스크도 안 쓰는 것보다 낫다’, ‘안 써도 된다’는 식의 말 바꾸기로 국민 속을 뒤집어놓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보여준 마스크 대책은 총체적인 난국 그 자체다. 가장 큰 문제는 발생 후 몇 주가 지나도록 마스크 수급에 불균형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이었다. 중국 봉쇄 다음 날인 1월 24일 의료용 마스크 수출금지, 2월 6일부터 마스크 가격통제에 들어간 대만이나 1월 31일 마스크 수출을 금지한 인도 정부의 대응과 한참 대비된다.

본래 국내 마스크 시장은 500억 원 규모에 불과했고 130여 개 생산업체도 대부분 영세했다. 이들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하루 최대 개파는 1100만~1300만 개다.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에게 이런 생산 능력은 하루에 5명에게 1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불안해진 국민들은 여유분을 비축하고 싶은

데스크칼럼

이 효 영

부국장 겸 유통바이오부장



가수요 심리가 생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급 불균형 상황을 매점매석 문제라고 치부하며 탁상행정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 남아 있던 마스크 재고가 1월까지 중국에 상당량 수출된 것은 되돌릴 수 없다 하더라도 2월 이후 수요 공급만 제대로 계산하고 대응했다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마스크 긴급수급 조치를 발동해 수출을 제한하고 약국,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으니 정부를 믿으라며 선부른 조기 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수급 계산은 틀렸고 결국 온 국민이 추위와 바이러스 전염 우려 속에서 공적 판매처 앞에 긴 줄을 서게 만들었다.

더욱이 내놓은 뒷북 대책들마저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스르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나 유인책을 제시하고 가격을 올려 줘서라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생산을 늘리면 원료 조달, 설비 확충, 추가 인건비 등으로 인해 원가가 올

라가는 것은 경제논리의 기본이다. 실제로 마스크의 핵심 원재료인 펠트블로운(MB) 필터는 그간 70%가 국산, 30%가 중국산이었는데 중국산 재료가 이전처럼 원활하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니 원재료 공급은 달리고 가격은 치솟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생산 원가나 물량을 생산 기업의 조건에 최대한 맞춰주고 공급을 늘리는 데 힘쓰기는커녕 정부 원칙대로만 밀어붙이려다 일부 업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없어 생산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영세한 마스크업체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한다 한들 5~6월이면 날씨가 따뜻해 마스크를 쓰지 못할 텐데 이 호황이 언제까지 가겠냐는 우려도 높다. 장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갑자기 생산량을 확 늘리거나 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 없는 것이다.

급기야 ‘마스크 5부제’라는 배급제가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1주일에 2장의 마스크도 사기 쉽지 않다. 특히 현장에서 줄을 서야 살 수 있는 방식은 노약자, 자영업자 등에게 그림의 떡이다.

마스크 5부제의 시작과 함께 온라인상에서는 ‘마스크 안사기 운동’(마스크 양보 운동)이 서서히 일고 있다.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 더 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지혜와 배려의 움직임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코로나 우울증에, 마스크 율화병까지 도지는 이 와중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살아 있다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위협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어본다. hylee@

배준호의 세계는 왜?



국제경제부 차장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가상의 존재인 좀비가 폭주하는 사태도 해결하겠다고 기세등등했던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실제 전염병에는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미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 6대 주로 퍼져나갔다. ‘돈썰’인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Pandemic·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꺼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팬데믹 상황에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절대로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좀비 아포칼립스(Zombie Apocalypse)’도 준비했던 미국이 실제 팬데믹에는 우왕좌왕하니 아이러니할 따름이다.

미국이 좀비 사태에 대비하는 ‘좀비 플랜’이 있었다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2014년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이 2011년 4월 30일(현지시간) 자로 좀비의 공격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전략 계획 문서인 코드명 ‘콘업8888’을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이 문건에서 규정한 좀비 발생 원인 중 하나

좀비도 잡겠다면 미국, 코로나19는?

는 바로 병원균의 공격이다. 또 문건은 인명 보호를 위한 방어선 유지, 좀비 위협을 퇴치하기 위한 작전, 정부가 법적 질서를 회복하도록 돕는 방안 등 3단계로 전략을 구성하는 등 단지 재미 삼아 만들었다기에는 매우 구체적이다.

팬타곤은 계획만 짜놓은 것이 아니라 훈련도 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016년 미 국방부 산하 국립군요원의과 대학이 좀비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상황을 가정해 간호사관 후보생들에게 검역과 대규모 백신 관리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에도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 대응 방안을 짜고 훈련까지 했던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 것인가.

주요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응 능력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미국은 분명 한국과 일본 등 중국 주변국보다 시간적 여유를 많이 확보했다. 또 이번 전염병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니 곳곳에서 구멍이 보이고 있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코

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자국민을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HHS) 요원들이 보호 장비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난달 말 한 미국 정부 내부고발자의 폭로다. 공교롭게도 우한에서 탈출한 미국인이 격리됐던 캘리포니아주 트래비스 공군 기지 인근에서 2월 말 해외를 방문하지도, 다른 확진자와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에 전염된 미국 첫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나왔다.

하루 약 1만 건에 달하는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지는 한국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한 미국의 검사 수도 질타를 받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은 6일 자 기사에서 수십 명의 공중보건 관계자와 인터뷰하고, 전국의 데이터도 집계한 결과 겨우 1895명이 검사를 받고 그중 약 10%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리더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번 사태로 다시 확인한 셈이다. 트럼프가 미리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경계하고 적절한 대응을 지시했다더라면 좀비라도 잡을 수 있다는 미국이 코로나19를 제어하지 못했을까. baehj94@

사설

실업급여 사상 최대, 코로나 충격 이제 시작인데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2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81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5%(169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 시설·관리, 숙박·음식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실업급여 신청과 지출이 폭증했다.

2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5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46만1000명)보다 16.3%(7만5000명), 신규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8만 명)보다 33.7%(2만7000명) 늘었다. 고용부는 보험 가입자 증가와 함께 급여 지급 상한액을 높이면서 지급기간이 연장됐고, 설 연휴의 변수로 업무일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설명한다.

지금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고용시장에 대한 충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바깥 말하면 코로나 영향이 나타나는 이제부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대량 실업이 가시화하면서 실업급여 지급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그럴 우려가 크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해 한국을 휩쓸고, 세계 모든 대륙의 국가에 걸잡을 수 없이 번지는 양상이다. 각국은 국경의 빗장까지 걸고 방역에 비상이지만, 통제에 실패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오던 세계

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의 팬데믹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고 경고했다. 전염병 확산의 차단이 어려워졌음을 자인한 것이다.

글로벌 수요의 감퇴와 공급망 붕괴, 교역 축소, 인적 이동 위축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한다. 코로나19 초기부터 한국 경제는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조달하는 부품과 원료 수급 차질로 공장이 잇따라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국내의 전염병 확산으로 소비가 얼어붙어 관광·여행·외식·숙박·공연 등 내수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팬데믹으로 커지면서 세계 100여 개 국가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기업들의 손발이 묶이고 수출에 기댄 우리 경제의 숨통이 막히는 전례없는 상황까지 왔다.

경제가 추락하면서 대량 실업(失業)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부터 위기 신호다. 실직자가 늘고, 취업하더라도 단기간만 일하고 다시 실업상태에 빠지는 등 고용구조와 질(質)이 악화하고 있다. 임금 조건이 좋은 제조업과 40대의 관청은 일자리를 계속 줄고 있다. 기업들은 골병들고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얼마나 버틸지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쇼크가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아직도 가늠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다.

세무, 특!

부동산법인 주식거래 체크리스트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시가가 형성되지 않아 매매 당사자 간 합의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용인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주식거래를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 제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거래 전 반드시 세금 문제부터 따져봐야 막대한 세금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부동산을 과점주주가 된 날에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보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지분을 이전해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모두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 당시 최고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므로

각 사례별로 취득세 과세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 납세의 의무가 없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 중인 법인 주주의 경우 사전에 지분 정리를 한다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비상장 부동산법인의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상증세법상 주식 가치평가를 해봐야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일반법인에 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높게 나오는데, 이를 간과하고 임의의 가액으로 평가액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게 되면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또 자산가액 중 부동산 비율이 높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때나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 방식에 준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식 양도 전 반드시 세액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THE FIRST SUV BY GENESIS
GENESIS GV80
가솔린 출시



GENESIS.COM



■ 국문본의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 서비스 080-7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3.5T GDI 2WD 7인 (22" 휠드림): 복합 8.2km/ℓ(도심 7.2km/ℓ, 고속도로 9.6km/ℓ) | CO2 배출량 219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2,160kg | 자중 1,915kg ▶ 3.5T GDI 2WD 5인 (22"): 복합 8.4km/ℓ(도심 7.4km/ℓ, 고속도로 9.9km/ℓ) | CO2 배출량 205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2,110kg | 자중 1,915kg ▶ 3.5T GDI 2WD 5인 (20"): 복합 8.6km/ℓ(도심 7.7km/ℓ, 고속도로 10.1km/ℓ) | CO2 배출량 199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2,095kg | 자중 1,915kg ▶ 3.5T GDI AWD 7인 (22"): 복합 7.8km/ℓ(도심 6.8km/ℓ, 고속도로 9.1km/ℓ) | CO2 배출량 221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2,240kg | 자중 1,915kg ▶ 3.5T GDI AWD 5인 (20"): 복합 8.0km/ℓ(도심 7.1km/ℓ, 고속도로 9.3km/ℓ) | CO2 배출량 215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2,175kg | 자중 1,915kg ▶ 2.5T GDI 2WD 7인 (22"): 복합 9.1km/ℓ(도심 8.2km/ℓ, 고속도로 10.4km/ℓ) | CO2 배출량 188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2,100kg | 자중 1,915kg ▶ 2.5T GDI 2WD 7인 (19"): 복합 9.3km/ℓ(도심 8.4km/ℓ, 고속도로 10.7km/ℓ) | CO2 배출량 183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2,075kg | 자중 1,915kg ▶ 2.5T GDI 2WD 5인 (19" 스포트드림): 복합 9.5km/ℓ(도심 8.5km/ℓ, 고속도로 10.9km/ℓ) | CO2 배출량 179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2,025kg | 자중 1,915kg ▶ 2.5T GDI 2WD 5인 (19"): 복합 9.7km/ℓ(도심 8.7km/ℓ, 고속도로 11.1km/ℓ) | CO2 배출량 175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2,025kg | 자중 1,915kg ▶ 2.5T GDI AWD 7인 (22"): 복합 8.5km/ℓ(도심 7.6km/ℓ, 고속도로 9.8km/ℓ) | CO2 배출량 202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2,185kg | 자중 1,915kg ▶ 2.5T GDI AWD 7인 (19"): 복합 8.8km/ℓ(도심 7.9km/ℓ, 고속도로 10.0km/ℓ) | CO2 배출량 194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2,155kg | 자중 1,915kg ▶ 2.5T GDI AWD 5인 (22"): 복합 8.6km/ℓ(도심 7.7km/ℓ, 고속도로 9.9km/ℓ) | CO2 배출량 199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2,130kg | 자중 1,915kg ※ 위 연비는 표준조건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운전자의 차와 실주행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제네시스는 지평(대리점)의 카리스마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비싼 가격을 설정하지 않습니다